

기본연구보고서 2008-07

서비스산업부문의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A Study on the Job Creation Plan
of Service Industry Section

김 기 희



연구진

연구책임

- 김기희 / 산업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서 문

서비스산업은 미래성장동력이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동시에 국민소득 증대, 산업구조 고도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성장동력화 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성장잠재력을 배양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이와 동시에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 발전 및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연구하고 나아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지역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서비스업종을 실증분석을 통해 선별하고 이로부터 일자리 창출 유망 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산업 인적자원 양성방안, 서비스산업 R&D 투자확대 촉진방안, 자영업주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가 대전지역 서비스산업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성실히 연구에 임해 준 연구자와 본 내용의 구성에 기여 해 준신 대전광역시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8. 11.

대전발전연구원장 육동일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서비스산업은 미래성장동력이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동시에 국민소득 증대, 산업구조 고도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대전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성장동력화 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성장잠재력을 배양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이와 동시에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 발전 및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연구하고 나아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 이를 위해 대전지역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서비스업종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선별하고, 노동생산성 및 고용과 관련한 변수들의 영향력 관계를 기초로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 서비스산업정책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고, 세부추진방안으로써 일자리 창출 유망 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산업 인적자원 양성방안, 서비스산업 R&D 투자확대 촉진방안, 자영업주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타 주요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 정책건의

□ 정책의 추진방향 및 전략

① 정책의 추진방향

○ 지역기반 서비스업 육성

- 지역경제 전반적인 고용창출 능력을 유지·보완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

○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 지역밀착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체계를 구축

② 추진전략

○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및 업종전환 유도

○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 정책인프라 정비

□ 일자리 창출 유망 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① 선진 경영환경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업종

- 도매·상품중개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컴퓨터운영관련업, 영화·방송·공연 산업, 수리업

② 적극적인 지원·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업종

-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운동관련업, 보험·연금업, 교육서비스, 회원단체, 기타서비스업

③ 선별적 지원·육성 또는 구조조정 업종

- 소매업, 통신업, 금융업, 기계장비, 소비용품 임대업

④ 선별적 구조조정을 통한 업종전환 유도 및 고용인력으로 유인 업종

- 자동차판매·차량연료소매업, 금융·보험관련업(개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종)

일자리창출 유망 및 쇠퇴업종 분류

구분		산업	기여도
성장 산업	고용 증가율 높음 노동생산성 증가율 높음	도매·상품중개업 연구·개발업	고용 증가 기여 노동생산성 증가 기여
고용 증가 업종	고용 증가율 높음 노동생산성 증가율 낮음	정보처리·컴퓨터운영관련업 영화·방송·공연산업 수리업	고용 증가 기여 노동생산성 증가 기여
		소매업, 통신업, 금융업, 기계장비, 소비용품 임대업	고용 감소 기여 노동생산성 증가 기여
고부가가치화 업종	고용 증가율 낮음 노동생산성 증가율 높음	부동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운동관련산업	고용 증가 기여 노동생산성 증가 기여
쇠퇴 업종	고용 증가율 낮음 노동생산성 증가율 낮음	숙박·음식점업, 보험·연금업, 회원단체	고용 증가 기여 노동생산성 증가 기여
		자동차판매·차량연료소매업 금융보험관련업	고용 감소 기여 노동생산성 증가 기여
정체 산업	고용 증가율 낮음 노동생산성 평균 증가율	기타서비스 교육서비스	고용 증가 기여 노동생산성 증가 기여

□ 서비스산업 인적자원 양성

① 서비스업 분야별 전문대학원 설립·운영

- 서비스 기업과 대학원간 학사 연계제도 강화하고, 서비스업계 인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업계 전문인력간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가칭 「서비스산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서비스전문인력의 공급을 도모한다.

② 서비스부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 업종별 단체주관의 직업능력 개발을 실시하고, 서비스산업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며, 중소 서비스기업의 인적자원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수요자 맞춤형 인력과 업종별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서비스산업 R&D 투자확대 추진

- 세제·자금지원상 제조업 중심의 R&D 개념을 서비스산업의 특성에 맞게 확대한다. 즉, 세제·자금지원상 R&D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의 R&D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서비스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R&D투자도 확대한다.

□ 서비스업부문 자영업주 경쟁력 강화

① 자영업정책의 기본방향

- 기본방향은 과잉진입 예방, 경영안정 지원, 사업전환 및 퇴출 유도이며, 이를 위하여 임금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경쟁력 없는 자영업주를 흡수하고, 준비 안된 자영업 진출 예방 및 준비된 자영업 창업을 활성화하며, 경쟁이 치열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영세자영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② 세부추진사업

- 세부추진사업으로는 상점가 자영업주 특화상품 지정, 권역별 업종별 고유 브랜드 개발, 대형마트와 지역내 자영업주간 상생협력, 자영업주 전용 워크넷 개발, 민간운영 소호 인큐베이팅센터 활성화, 소상공인 전문연수원 설립 유치 및 운영사업, 퇴직자 전환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기타 주요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① 사업서비스 분야

-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첨단기업 세제지원,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고객서비스 기능 강화 사업 등 추진

②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분야

- 도서관, 문예회관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광고업·디자인업에 대한 과세 특례 확대, 문화산업 클러스터내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문화컨텐츠 창작활성화를 위한 Creative R&D센터(창작연구소) 설립 지원, 문화산업에 대

한 인력확보 지원, 문화컨텐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사업 추진

③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

- 병원경영지원회사(MSO설립), 공급과잉 영세 의료기관 구조조정,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사업」 추진, 의료관고아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 마련 등의 사업 추진

④ 숙박·음식업 분야

- 관광식당업 지정 및 관리기준 개선, 관광숙박업 사무처리업무 광역화 등 사업 추진

⑤ 기타 분야 사업

- (가칭) 「서비스산업지원센터」설립, 서비스산업 통계인프라 개선,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여건 조성, 개인서비스업종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문화·환경·통신서비스업 범위 확대, 민간고용 서비스 확대, 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청소 등 단순용역 서비스의 제한경쟁입찰 제한기준 완화 등 사업 추진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5
1. 연구방법	5
2. 연구의 구성	5
제2장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특성 분석	11
제1절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노동생산성 분석	11
1.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11
2. 서비스업의 업종별 변화	17
제2절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노동생산성 기여도 분석	21
1.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화	21
2.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노동생산성 기여도	25
제3장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의 결정요인	33
제1절 분석모형 및 이용자료	33
1. 분석모형	33
2. 이용자료	35
제2절 추정결과 및 시사점	37
1. 추정결과	37
2. 특징 및 시사점	44

제4장 서비스산업부문 일자리창출 방안	47
제1절 정책의 추진방향 및 전략	47
1. 정책 추진방향	47
2. 추진전략	49
제2절 세부추진방안	53
1. 일자리창출 유망 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53
2. 서비스산업 인적자원 양성	57
3. 서비스산업 R&D 투자확대 추진	59
4. 서비스업부문 자영업주 경쟁력 강화	61
5. 기타 주요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66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79
제1절 결론	79
제2절 향후 연구과제	80
참고문헌	83

- 표 목 차 -

<표 2-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RDP 구성비 추이(명목)	11
<표 2-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율	14
<표 2-3> 서비스업 업종군 유형	20
<표 2-4> 서비스업 업종별 주요 고용 및 생산성 지표	22
<표 3-1> 서비스업 업종별 변수의 기초통계량	36
<표 3-2> 서비스업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동의 결정요인(I)	39
<표 3-3> 서비스업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동의 결정요인(II)	41
<표 3-4> 서비스업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동의 결정요인(III)	43
<표 4-1> 일자리창출 유망 및 쇠퇴업종 분류	54

- 그림 목 차 -

[그림 2-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RDP 생산비중 추이(명목)	11
[그림 2-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RDP 생산비중 추이(실질)	13
[그림 2-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추이	14
[그림 2-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추이(실질)	15
[그림 2-5] 서비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18
[그림 2-6] 서비스업의 업종별 고용 비중 변화	19
[그림 2-7] 서비스업 업종별 취업자 증가율과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	24
[그림 2-8] 서비스업 업종별 고용 및 생산성 증가 기여도	28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지역적 현안이 되고 있다. 그동안 성장엔진의 역할을 수행해 온 제조업이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매우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제조업은 투자의 부진, 생산비용의 증가, 설비의 해외이전 등 내외 여건의 악화로 성장엔진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성장엔진의 마땅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제조업이 악화됨으로서 경제 전체의 성장은 물론 고용능력 저하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이 중요한 것은 서비스업의 생산 및 고용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되는 등 세계 경제의 기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비스업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경제의 정보화 및 지식기반화도 서비스업의 잠재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서비스산업은 미래성장동력이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민소득 증대, 산업구조 고도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도 제조업의 1.6배(전국)로 일자리 창출효과 크다.

고부가가치형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부문의 성장을 추구한다면, 향후 경제 전체의 성장은 물론 고용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개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전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성장동력화 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도 있다. 본질적으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속도가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제조업을 대체할 수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취약한 서비스 고용구조, 미흡한 서비스 중간투입, 제한된 서비스무역, 경쟁력 취약 등이 서비스업을 성장엔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한편으론 서비스업부문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경제가 성장잠재력 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을 겪으면서 일자리 창출은 과거 어느 시대에 비해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전지역의 서비스산업은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80%를 초과하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임. 특히 서비스부문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내부구조를 고부가가치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도 시급히 요구되며, 아울러 각종 제도나 인프라 개선, 서비스업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 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 발전 및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연구하고 나아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전지역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창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서비스업종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선별하여 서비스산업 부문의

성장을 제고를 위한 생산성 제고방안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부문 미래 전문인력 육성, 고용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따른 서비스 업종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 연구 방법

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내총생산 자료와 사업체기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1인당 부가가치 및 고용비중을 통하여 서비스업종별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통계청에서 5년 단위로 조사되는 「서비스업총조사」의 2001년과 2005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인당 취업자 증가율과 부가가치 증가율을 서비스 업종별로 산출한 후 이론모형을 통하여 고용 및 생산성 기여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노동생산성 변동모형을 이용하여 서비스부문의 10개 산업대분류별 서비스산업 생산성 증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서비스산업별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화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적출하고 서비스업 전반 및 분야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산업별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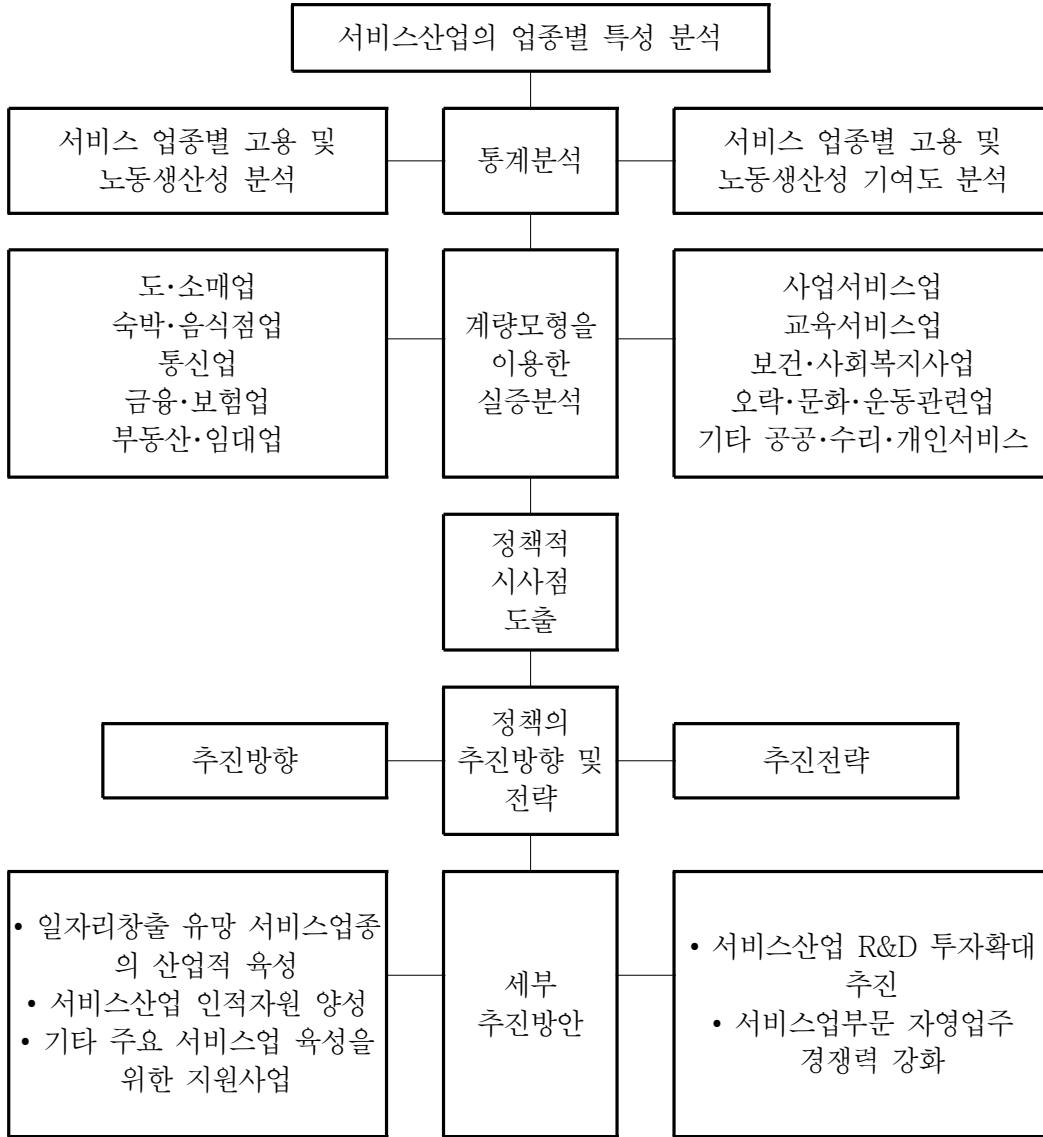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가공 및 이론적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서비스업종별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화와

기여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특성을 적출하고 정책 대안제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노동생산성 변동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서비스산업 생산성 증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2001년과 2005년의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서비스산업 10개 대분류별 노동생산성 변동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함으로써 노동생산성 및 고용과 관련한 변수들의 영향력 관계를 기초로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산업부문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일자리 창출 관련 서비스산업정책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고, 세부추진방안으로써 일자리 창출 유망 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산업 인적 자원 양성방안, 서비스산업 R&D 투자확대 촉진방안 등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기타 주요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의 분석 틀]



제 2 장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특성 분석

제1절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화

제2절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생산성 기여도 분석

제 2 장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특성 분석

제1절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노동생산성 분석

1.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1) 부가가치 생산 및 생산성 현황

(1) 제조업보다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세

대전지역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은 제조업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편이다. 지난 1990~2006년 기간 중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5.8%로서 제조업의 3.3%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서비스부문의 GRDP 비중 추이를 제조업과 비교해 보면, 명목기준으로 1990년 54.1%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94년 60%를 넘어서고 2006년 현재 71.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은 1990년 제조업보다 매우 낮은 25.1%의 구성비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6년 현재 17.5%로 낮아져 매우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RDP 구성비 추이(명목)

(단위 %)

년 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제 조 업	25.8	25.1	23.0	19.3	18.8	19.3	19.6	19.4	19.9
서 서비스업	57.7	54.1	52.9	55.1	56.2	61.1	63.7	64.0	63.9
년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제 조 업	20.9	19.9	21.3	19.8	20.2	17.4	19.0	17.0	17.0
서 서비스업	64.1	66.8	66.8	68.5	68.4	69.7	68.5	71.1	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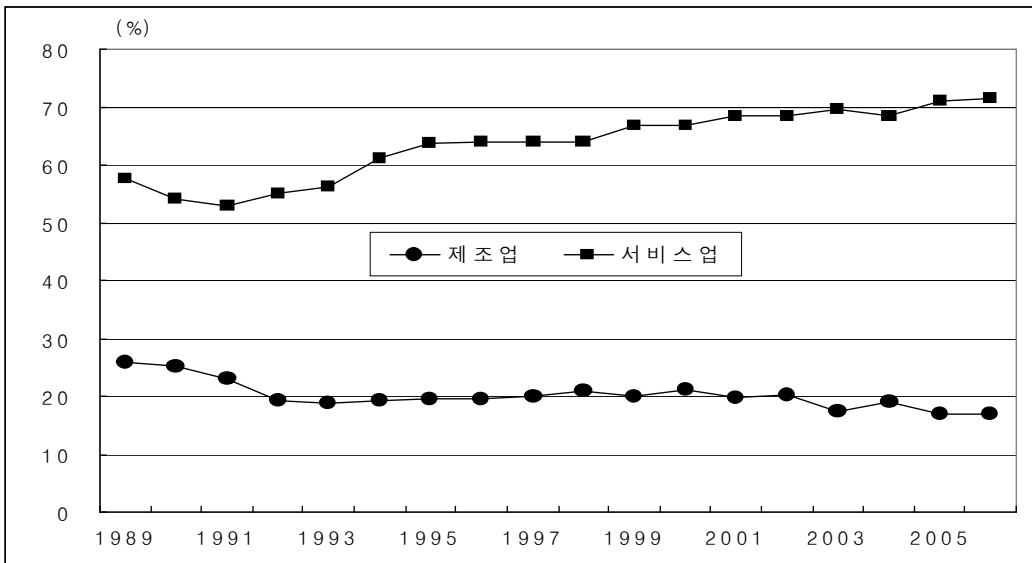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이처럼 서비스업 생산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실현하고 있는 것은 대전지역의 제조업 생산기반이 취약한 반면, 2000년대 이후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발달에 따른 생산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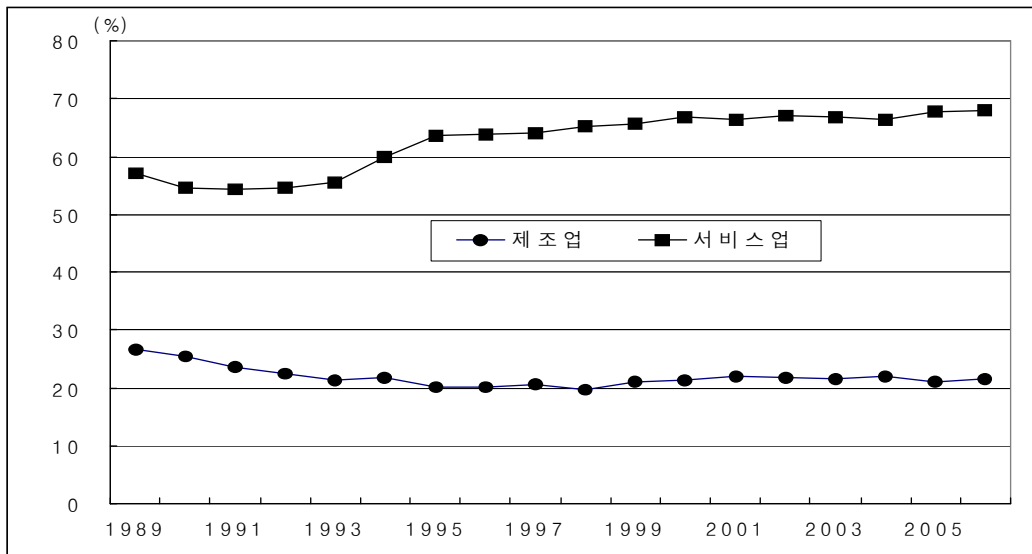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지난 수십년간 선진국들의 경제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서비스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제조업 무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원서비스의 발전, 경제 전반의 시식정보화 경향, 소득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 욕구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구조면에서도 큰 25년간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생산의 GDP비중이 오히려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선진국과는 달리 증가추세를 보인 현상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업의 성장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그 보다는 제조업의 발전 부진이 더 큰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림 2-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RDP 생산비중 추이(명목)



[그림 2-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RDP 생산비중 추이(실질)



(2) 서비스부문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

부가가치 생산과 함께 서비스부문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1993년 75.9%에서 2006년 82.8%를 점유하기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같은 기간동안 18.5%에서 11.4%를 점유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고용 증가세도 지난 13년간 서비스업은 연평균 3.55%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연평균 -0.88%로 감소하였다. 서비스산업의 고용증가 현상은 고용이 오히려 감소한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 더 부각된다.

이처럼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되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되는 현상은 산업구조조정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제조업에서는 대외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생산성의 증가 압력을 받고 있어 자동화 등을 통한 인력감축의 노력을 취할 수 밖에 없고, 반면, 제조업 고용방출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에서 방출된 인력과 노동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인력을 흡수함으로써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개발연구원,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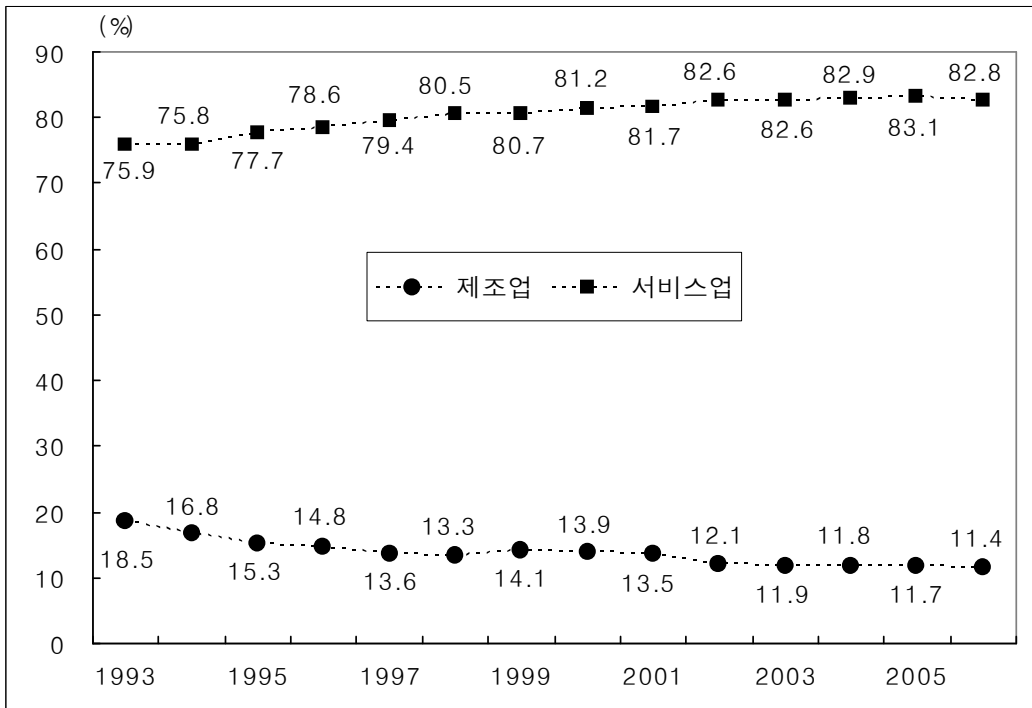
<표 2-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율

(단위 : %)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제조업	7.9	-0.3	-2.3	-9.1	-11.2	11.7	1.1	5.5	-8.7	-3.3	0.7	-0.5	-0.3	-0.88
서비스업	19.1	12.0	2.2	-0.1	-8.0	5.6	3.3	9.0	3.1	-1.5	1.6	0.9	1.4	3.55

자료 : 통계청, <http://www.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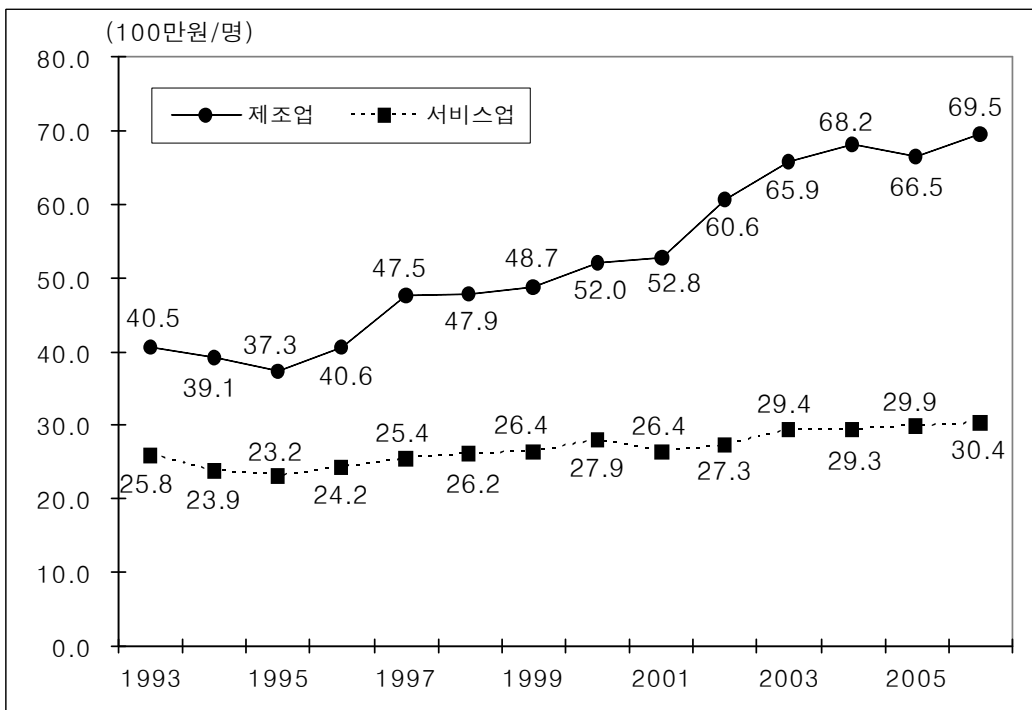
[그림 2-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추이



(3) 서비스업의 저조한 생산성

대전지역의 서비스업은 실질생산의 GRDP 비중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 함께 노동 투입 비중이 증가하여 제조업과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1995년 이후 확대되고 있다. 지난 1993년에서 2006년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실질기준으로 연평균 1.3%에 그쳤는데, 이는 제조업의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4.2%의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림 2-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추이(실질)



이와 같이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명목 부가가치 확대는 대부분 가격상승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제조업의 가격상승 둔화는 서비스업의 상대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확대를 결과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전지역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구조변화가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전지역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이 고부가가치 - 고생산성 부문으로 원활하게 재배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며, 달리 표현하면 서비스산업 내에서 저부가가치 - 저생산성 부문이 퇴출되지 않고 심지어는 덩치를 키워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대전지역 제조업부문은 분석 기간 비교적 건강한 구조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부문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 내 고부가가치 업종의 성장은 최근 들어 오히려 둔화되고 있고 저 생산성 부문의 확장이 서비스 부문의 구조변화를 주도한다면, 대전지역의 산업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정체산업(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노동의 산업간 재배분이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 상승 및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보몰(Baumol)의 ‘구조적 부담가설’ 세계(Baumol(1967), 황수경(2008))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2) 서비스화에 따른 고용창출 시사점

대전지역의 서비스화 과정에서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 분야일수록 고용창출 효과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업에서 1인당 부가가치의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 증가율도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조업의 발전과정에서 생산성이 증대할수록 오히려 고용창출 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상반되는 특징을 갖는다.

제조업에서는 고용 증가와 1인당 부가가치의 증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의 산업발전과정에서 한편으로는 기술혁신에 의한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쇠퇴 또는 산업현장의 고용 감축을 통해

생산성 증가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우 고용과 부가가치 양자 간에 역의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의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서비스업이 향후 대전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대전경제는 향후 고용창출을 꾀한 성장전략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한편, 고용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이 지역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대두하게 될 것이다.

2. 서비스업의 업종별 변화

1) 생산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업종별 변화 추이

대전지역 서비스산업 부문의 업종별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면, 도·소매업, 통신업, 금융·보험,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교육 등의 서비스업종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운수업, 부동산·사업, 보건·사회복지,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추세적으로 하락(또는 정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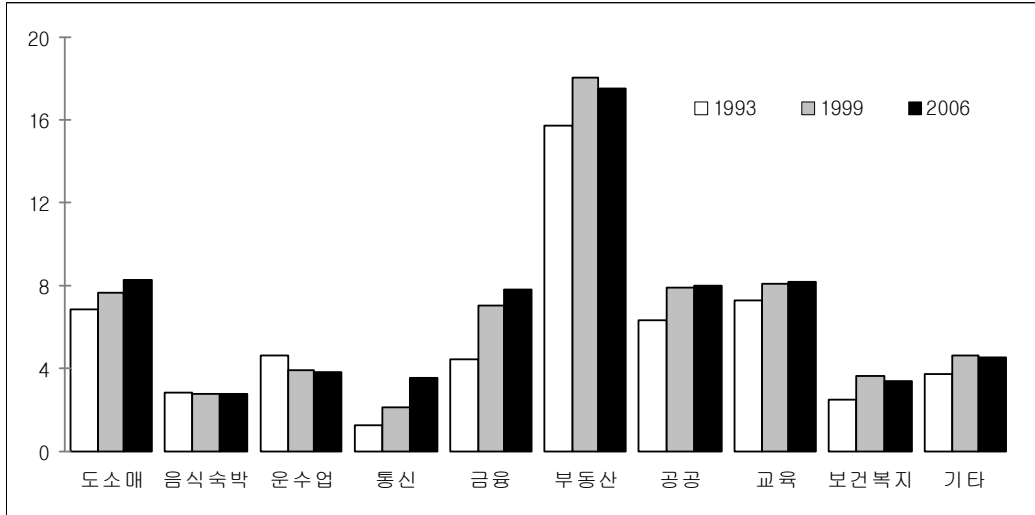
금융·보험업종의 경우 금융자유화, 금융세계화에 따른 지속적인 금융시장 개방,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으로 인해 생산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IT혁명에 따른 인터넷 확산, 이동통신 서비스 확대 및 관련 부가서비스의 성장으로 인해 통신분야의 생산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 음식·숙박, 운수업 등과 같은 전통적 서비스업종의 경우 성장에 일정한 한계를 보여 생산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들 부문은 주로 생계형 영세자영업주들로 구성된 분야로서, 1990년대 이후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웰빙의 중요성의 부각과

함께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성이 높은 대형업체들로 대체되고 있는 데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5] 서비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업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	공공	교육	보건 복지	기타
1993	6.8	2.9	4.6	1.2	4.4	15.7	6.3	7.3	2.5	3.7
1999	7.6	2.7	3.9	2.1	7.0	18.1	7.9	8.1	3.6	4.6
2006	8.3	2.8	3.8	3.5	7.8	17.5	8.0	8.2	3.4	4.5

2) 고용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업종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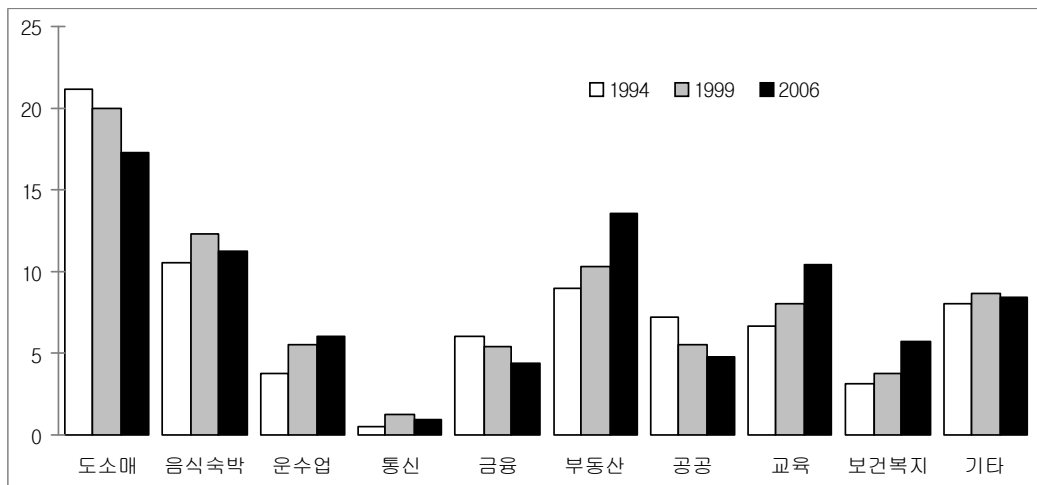
대전지역 서비스산업 부문의 업종별 고용 비중의 변화를 보면, 운수업, 부동산·사업, 교육, 보건·사회복지부문 등의 서비스 업종은 고용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도매·소매, 음식·숙박, 통신, 금융·보험,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부문 등의 서비스 업종의 고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추세적으로 하락(정체)하고 있

다.

외환위기 이전에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급증한 것은 대전지역 서비스업종에서 전통업종이자 고용 점유 비중이 큰 음식·숙박업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 사업서비스업부문의 비중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금융업종의 경우 생산비중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고용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6] 서비스업의 업종별 고용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업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	공공	교육	보건 복지	기타
1993	21.1	10.5	3.7	0.5	6.0	9.0	7.1	6.7	3.2	8.0
1999	20.0	12.3	5.5	1.3	5.4	10.3	5.5	8.0	3.7	8.7
2006	17.3	11.2	6.1	1.0	4.4	13.5	4.8	10.4	5.7	8.4

3) 서비스업종의 유형별 분류

서비스업의 업종들을 생산측면과 고용측면을 고려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이는 성장업종과 쇠퇴업종을 가려내어, 유형별로 각기 다른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 ①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이 모두 증가하는 성장 업종
- ② 부가가치 비중은 증가하지만 고용 비중은 감소하는 고부가가치 화업종
- ③ 고용비중은 증가하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는 생산성 하락 업종
- ④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 모두 감소하는 쇠퇴 업종

이와 같이 분류할 때,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서비스업 업종군 유형

	특 성	서 비 스 업 종
성장 업종	부가가치 증가, 고용 증가	교육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업종	부가가치 증가, 고용 감소	도·소매, 통신, 금융·보험,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고용 증가 업종	부가가치 감소, 고용 증가	운수업, 부동산·사업, 보건·사회복지
쇠퇴 업종	부가가치 감소, 고용 감소	숙박·음식,

※ 기타서비스업은 부가가치는 추세적으로 증가하지만, 고용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

제2절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생산성 기여도 분석¹⁾

1.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화

1)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생산성 지표

서비스산업은 무형의 재화인 서비스를 주로 생산한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법률 지원이나 연구개발 등과 같은 전문서비스에서부터 가사도우미와 같은 개인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업종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 결과 그 특성 및 경제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도 업종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황수경, 2008)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여기서는 개개의 세부적인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2001년과 2005년에 실시된 「서비스업총조사」 자료가 이용된다.

대전지역은 23개 중분류 서비스 업종 가운데 2005년 현재 취업자수로는 소매업(자동차 제외)(15.7%), 숙박·음식점업(14.5%), , 교육서비스업(13.8%) 순으로 규모가 크고, 이들 세 업종이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서비스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표2-4]참조). 반면에 부가가치 생산으로는 보험·연금업(17.1%), 금융업(15.6%), 연구·개발업(11.8%)의 순으로 규모가 크고, 이들 세 업종은 전체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절반 수준을 생산하고 있다.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숙박·음식점업이나 소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각각 2.3%, 5.1%에 불과하고, 부가가치 비중이 큰 보험·연금업과 금융업의 고용 비중은 각각 2.8%, 2.4%에 불과하여 업종간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1) 본 이론적 고찰 부분은 황수경(2008) 논문의 32쪽에서 35쪽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표 2-4> 서비스업 업종별 주요 고용 및 생산성 지표

구 분	취업자 비중		부가가치 비중		취업자 증가율	1인당부가가치 증가율
	2001	2005	2001	2005	01~05	01~0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9.5	51.5
자동차 판매·차량연료 소매업	2.0	1.8	0.9	0.8	-2.6	50.7
도매·상품 중개업	7.9	8.3	3.3	5.2	15.1	124.0
소매업;자동차 제외	16.2	14.5	4.3	5.1	-1.9	99.9
숙박·음식점업	16.7	15.7	2.7	2.3	3.2	35.5
통신업	2.0	1.5	7.3	10.1	-17.1	177.6
금융업	3.2	2.4	17.1	15.6	-15.7	80.1
보험·연금업	3.6	2.8	21.8	17.1	-14.6	52.9
금융·보험관련 서비스업	0.4	0.4	1.3	1.2	-6.2	56.9
부동산업	3.8	4.2	5.1	5.1	20.9	38.9
기계장비·소비용품 임대업	0.6	0.4	0.2	0.3	-17.5	241.2
정보처리·컴퓨터운영 관련업	1.2	1.0	1.2	1.3	-1.9	90.5
연구·개발업	5.2	5.5	9.7	11.8	15.1	76.3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2.5	2.7	1.6	1.9	18.9	63.2
사업지원 서비스업	3.3	5.1	2.8	2.8	67.8	-1.8
교육 서비스업	13.3	13.8	9.5	8.2	13.0	26.7
보건업	5.3	6.1	4.6	4.1	26.9	16.2
사회복지사업	1.1	1.6	0.3	0.5	62.2	43.8
영화, 방송·공연산업	0.5	0.5	0.7	1.0	0.5	145.8
오락, 문화·운동관련 산업	2.6	3.1	2.3	2.2	29.3	21.8
하수처리,폐기물처리·청소관련업	0.3	0.5	0.4	0.4	99.6	-22.4
회원 단체	2.5	2.3	1.1	0.9	-0.8	41.8
수리업	2.6	2.3	1.3	1.5	0.2	95.0
기타 서비스업	3.3	3.4	0.6	0.6	13.6	48.0

2) 서비스 업종별

서비스산업 내에 생산성 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태생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업종별 격차의 변화 양태가 어떤가 하는 점이다. [그림 2-7]은 2001년과 2005년 사이 서비스 업종별 취업자 증가율과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의 관계를 도시하고 있다. 고용 증가율과 생산성 증가율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몇 가지 그룹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 유형 I : 생산성 증가율이 높으나, 고용 증가율은 낮은 업종

노동생산성은 고용이 가장 크게 감소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사회복지사업도 고용은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평균 이하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노동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오락·문화·운동관련 산업, 보건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들 업종 모두 같은 기간 고용이 감소하거나 평균 이하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들 업종은 고용을 절약함으로써 효율화를 이룬 업종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고용이 증대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 유형 II : 생산성 증가율도 높고, 고용 증가율도 높은 업종

노동생산성이 평균수준으로 증가한 도매·상품 중개업은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며, 연구·개발업도 노동생산성 및 고용 증가율이 평균수준정도 이지만 이 유형으로 분류해 본다. 연구·개발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 분야라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들 업종에서의 고용 증가는 생산성 증가를 수반하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설관리 위탁 및 인력공급업이 포함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이나 간병도우미가 급증한 보건업 등의 경우 고용 증가는 주로 단순 직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 유형 III : 고용 증가율은 높으나, 생산성 증가는 평균 이하로 저조한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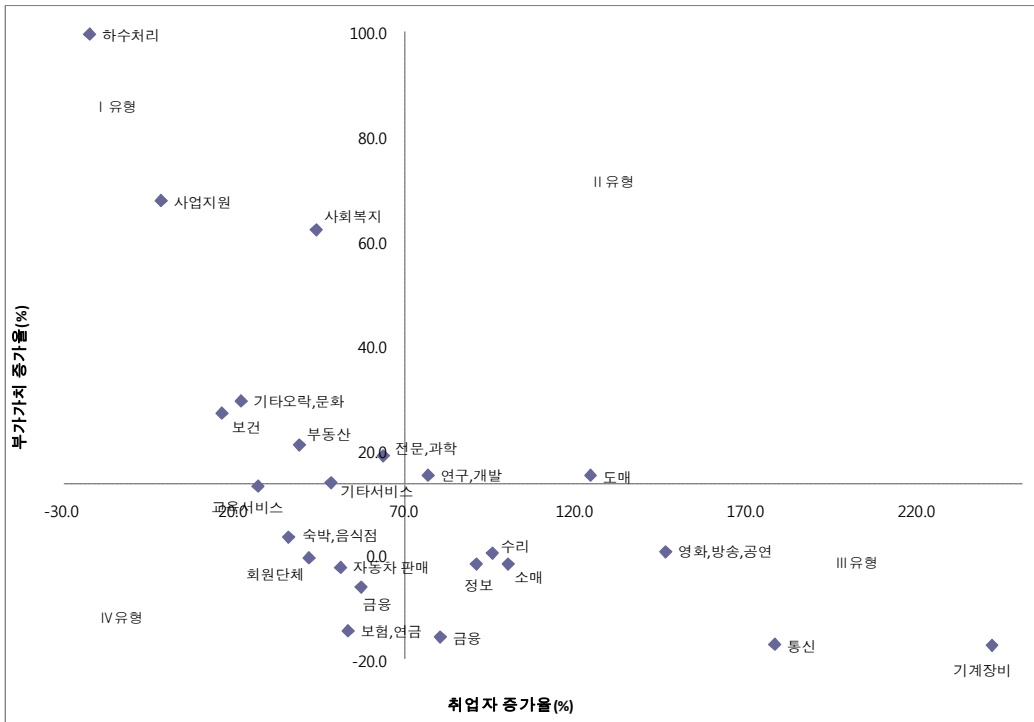
비록 생산성 증가율은 평균 이하로 저조하지만, 기계장비·소비용품 임대업, 통신업, 영화·방송·공연산업 순으로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상대적으로 고용 증가율이 높은 소매업(자동차 제외), 수리업, 정보처리·컴퓨터운영 관련업, 금융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유형 IV : 고용 증가율도 낮고 생산성 증가율도 저조한 업종

고용 및 생산성 증가율이 모두 저조한 업종으로, 숙박·음식점업, 회원단체, 자동차 판매·차량연료 소매업, 금융·보험관련업, 보험·연금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업종은 생산성 증가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금융·보험관련업을 제외하고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업종에 해당하며 구조적인 퇴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7] 서비스업 업종별 취업자 증가율과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2001~2005)



유형	특성	서비스 업종
I 유형	고부가가치화 업종	사업지원, 오락·문화·운동관련 산업, 사회복지사업, 보건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II 유형	성장업종	도매·상품 중개업, 연구·개발업
III 유형	고용 증가 업종	기계장비·소비용품 임대업, 통신업, 영화·방송·공연산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수리업, 정보처리·컴퓨터운영 관련업, 금융업
IV 유형	쇠퇴업종	숙박·음식점업, 회원단체, 자동차 판매·차량연료 소매업, 금융·보험관련업, 보험·연금업

2.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노동생산성 기여도

1) 고용 및 노동생산성 기여도 산출식

대전지역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비스 부문의 생산 및 고용비중은 제조업보다 높으며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서비스 부문의 노동생산성 상승은 제조업보다 낮으면서도 매우 느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대전지역 경제 전체로 소득수준에 비추어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이 이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특징지어진다.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전지역 서비스산업 특성변화를 좀 더 분석적인 방법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Beebe & Haltmaier(1983)와 Peneder(2003)에서와 같이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변화를 요인별 분해를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원용하여 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생산성 기여도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서비스산업의 총 노동생산성 변화는 변화-구성 요인분해(shift-share decomposition)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총 부가가치를 Y , 투입된 노동량을 L , 해당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q , 해당산업의 고용 비중을 s 라 하면, 노동생산성 P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 \equiv \frac{Y}{L} = \frac{\sum P_i L_i}{L} = \sum s_i P_i$$

여기서 하첨자 i 는 산업에 속하는 개별 업종을 지칭한다.

위의 식을 구간 변화분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세 항으로 분리될 수 있다.

$$\Delta P = \Delta(\sum s_i P_i) = \sum s_i \Delta P_i + \sum P_i \Delta s_i + \sum \Delta s_i \Delta P_i$$

다시 여기에 $P \equiv (s_i/q_i)P_i$ 의 관계를 이용하여 %변화율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frac{\Delta P}{P} = \sum q_i \frac{\Delta P_i}{P_i} + \sum q_i \frac{\Delta s_i}{s_i} + \sum q_i \frac{\Delta P_i}{P_i} \frac{\Delta s_i}{s_i}$$

따라서 산업의 총 노동생산성 변화율은 개별 업종의 노동생산성 변화율과 업종

별 고용 비중의 변화율을 이용해 재구성될 수 있게 된다. 우변의 첫째 항은 산업의 부가가치 구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개별 업종의 노동생산성 변화가 전체 산업의 노동생산성 변화에 미친 효과, 즉 생산성 효과를 의미하고, 둘째 항은 산업의 부가가치 구성이 불변인 상황에서의 고용 비중 변화가 전체 산업의 노동생산성 변화에 미친 효과, 즉 고용변동 효과를 의미한다. 셋째 항은 두 변화의 상호작용이 전체 노동생산성 변화에 미친 효과, 즉 교차 효과가 된다.

그런데, 서비스 부문의 각 업종들은 취업자 및 부가가치 규모에 있어서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개별 업종이 전체 서비스 부문의 고용과 생산성 증가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취업자 증가율 기여분의 산출에는 개별 업종의 시작년도 고용 비중이 가중치로 사용될 수 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frac{\Delta L}{L} = \Sigma \frac{L_i^1 - L_i^0}{L^0} = \Sigma \frac{(L_i^1 - L_i^0)}{L^0} \times \frac{L_i^0}{L_i^0} = \Sigma s_i^0 \frac{\Delta L_i}{L_i}$$

위 식에 따라 각 업종별 기여분의 합이 전체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율과 같아 지도록 배분할 수 있다.

한편,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위의 변화-구성 요인분해 식을 이용하여 각 업종별 기여분을 산출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frac{\Delta P}{P} = \Sigma q_i^0 \left(\frac{\Delta P_i}{P_i} + \frac{\Delta s_i}{s_i} + \frac{\Delta P_i}{P_i} \frac{\Delta s_i}{s_i} \right)$$

이 경우에도 각 업종별 기여분의 합이 전체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과 일치하도록 배분한다. 이렇게 업종별로 배분된 값은 각 업종의 고용 및 생산성 변동이 전체 서비스업의 고용 및 생산성 변동에 미치는 기여도로 해석될 수 있다.

2) 분석결과

(1) 업종별 고용 및 생산성 변동 기여도

앞에서 유도한 서비스업의 업종별 고용 및 생산성 변동에 미치는 기여도 산출식

을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를 논의하기로 한다. [그림 2-8]은 각 업종별 취업자 변동 및 노동생산성 변동이 전체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율(9.46%)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51.5%)에 미친 효과를 기여분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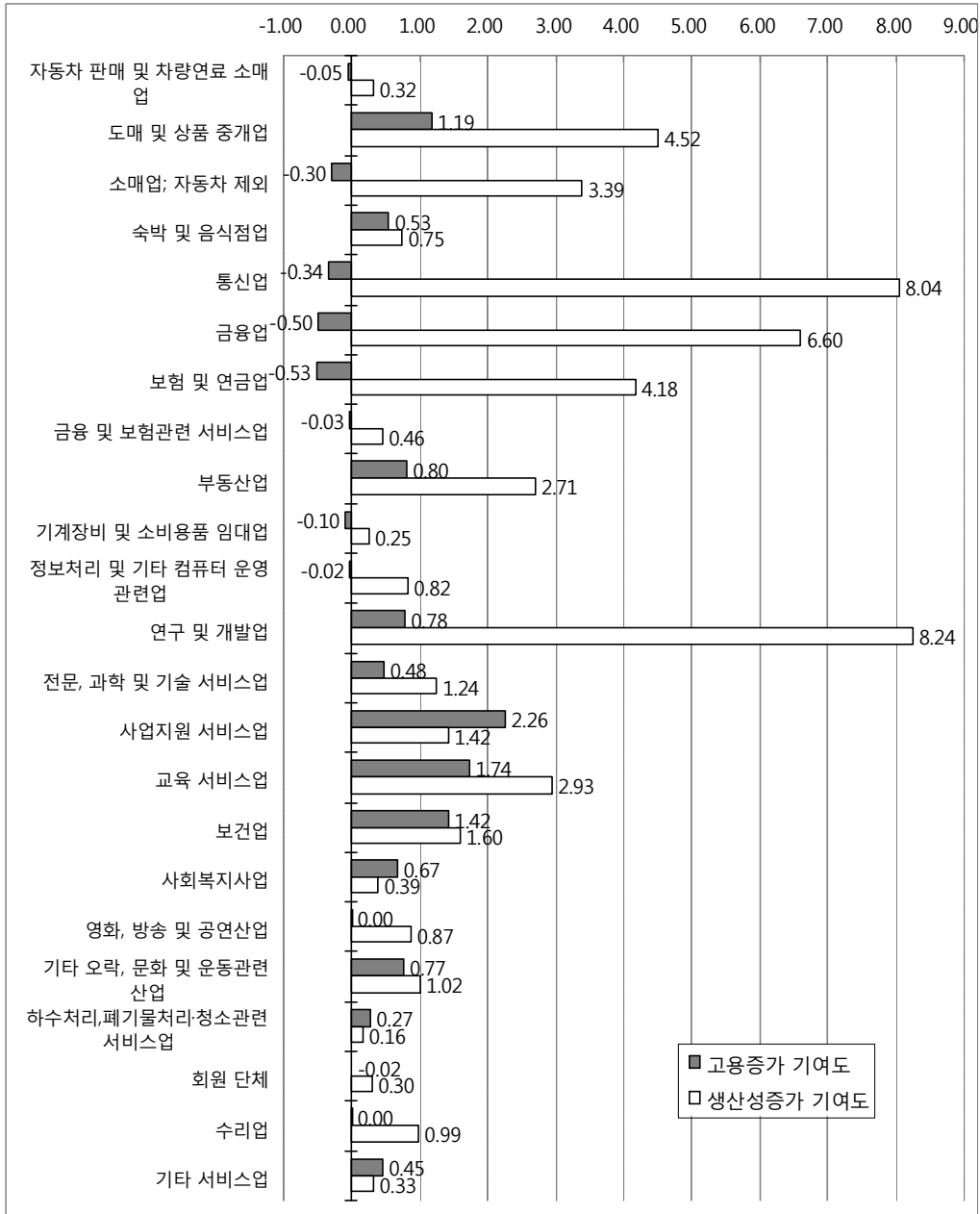
2001~2005년 사이 전체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업종은 사업지원서비스업(2.26%p)이고, 그 다음으로 고용 기여도가 높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1.74%p), 보건업(1.42%p), 도매 및 상품 중개업(1.19%p) 순이다. 이들 업종의 고용 기여도 합(6.6%p)은 전체 서비스업 고용 증가의 69.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네 업종이 서비스산업 생산성 증가에 미친 기여도 합(10.5%p)은 전체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의 20.3%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 중 도매 및 상품 중개업과 교육서비스업은 고용 증가에 대한 기여 이상으로 생산성 증가에 높은 기여를 하였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오락·문화·운동관련 산업, 숙박·음식점업에서의 고용증가가 서비스산업의 고용증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는데, 연구 및 개발업은 생산성 증가에 가장 높게 기여하고 부동산업도 상대적으로 높게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반면, 부동산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생산성 증가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업종은 연구 및 개발업, 통신업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 성과가 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업, 도매·상품중개업, 보험 및 연금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통신업, 부동산업 등도 서비스산업 생산성 증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소매업(자동차 제외), 통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은 서비스산업 고용 증가에는 마이너스 기여, 즉 고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종에서의 고용 감소가 전체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8] 서비스업 업종별 고용 증가 및 생산성 증가 기여도

(단위 : %p)



(2) 특징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업종별 특성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해 볼 때, 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가가 저조하고 여전히 보몰(Baumol)²⁾세계에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상대적으로 제조업과의 연관성이 큰 사업서비스업의 구조적 낙후성에 서 찾을 수 있다.

유 형	업 종
고용 증가 기여 생산성 증가 기여	도매·상품 중개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운동관련산업, 하수·폐기물처리·청소관련업 기타서비스업
고용감소 기여 생산성 증가 기여	자동차 판매·차량연료 소매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통신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기계장비·소비용품 임대업

2) 보몰(Baumol)의 세계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정체산업인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노동의 산업간 재배분이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 상승 및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제 3 장

서비스산업 생산성 증가의 결정요인

제1절 분석모형 및 이용자료

제2절 추정결과 및 시사점

제 3 장 서비스산업 생산성 증가의 결정요인

제1절 분석모형 및 이용자료

1. 분석모형

지금까지 주로 요인분해에 기초하여 대전지역 서비스산업 구조변화의 특징과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요인분해에 의한 분석은 구조변화의 특징을 잘 묘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그다지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량적으로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그 효과를 추정하는 회귀분석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여기서는 2001년과 2005년의 「서비스업총조사」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노동생산성 변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노동생산성은 산출량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값이다. 산출량은 생산함수로부터 결정되고, 노동투입량은 노동수요함수(또는 간접비용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은 생산함수 및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증분석에 이용될 「서비스업총조사」는 부정기 조사라는 자료의 특성상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함수(혹은 비용함수)를 통한 엄밀한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다만 주어진 자료상의 제약을 감안할 때, 주된 관심 변수인 임금, 노동생산성, 고용 변동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모형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text{노동생산성 변동} = f(\text{임금변동, 비정규직 비율 변동, 노동집약도 변동})$$

즉, 분석기간 중 위의 네가지 변수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함

으로써 현실의 동학관계를 개략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아래의 관계가 관찰되었다고 가정하면,

$$\text{노동생산성 변동} = f(\text{임금변동}, \text{비정규직 비율 변동}, \text{노동집약도 변동})$$

(+) (+) (-) (-)

다음과 같은 경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 임금이 상승하였을 때 노동생산성도 상승하였다.
- ii)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증가)하면서 노동생산성이 상승(감소)하였다.
- iii) 노동집약도가 감소(증가)하였을 때, 노동생산성이 상승(감소)하였다.

따라서 <부표 1>에서 제시된 실제 변수의 변동을 감안하면(비정규직 비율 증가 혹은 감소 ; 노동집약도의 감소 혹은 증가), 노동생산성 상승, 임금 상승, 고용변동 사이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실증분석에는 대전광역시 서비스업 세분류(4-digit) 업종별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이 추정되었다.

$$\Delta P_{ij} = \alpha + \beta_1 \Delta W_i + \beta_2 \Delta NF_i + \beta_3 \Delta LI_i + \beta_4 \Delta SE_i + \beta_5 \Delta IS_i$$

$$+ \beta_6 \Delta PC_i + \beta_7 \Delta IU_i + \beta_8 \Delta EC_i + \mu_i$$

여기서 P 는 노동생산성이고, 하첨자 i 는 업종을 의미한다. 노동생산성 증가의 설명변수로 고려된 요인들은 1인당 인건비(W), 비정규직 비중(NF), 노동집약도(LI), 평균 종사자수(SE), 매출액 집중도(IS), PC 보유업체 비중(PC), 인터넷 사용업체 비중(IU), 전자상거래 활용업체 비중(EC) 등의 변동치이다.

노동생산성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로 측정되었다. 1인당 인건비는 총 인건비를 종사자수로 나누어 산출하였고, 비정규직 비중은 임금 근로자 중 임시·일용 및 무급근로자의 비중으로 측정되었다. 1인당 인건비와 비정규직 비중의 변화는 노동의 양과 질에 대한 업종별 수요 변동과 관련된다. 노동집약도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매출액 집중도는 50억 이상 사업체의 매출액 비중으로 측정되었는데, 평균 종사자수와 함께 업종의 생산구조 및 산업구조적 변화를 반영한다. 그밖에 PC 보유 비중, 인터넷 사용 비중, 전자

상거래 활용 비중은 기술적 투자를 포착하기 위해 고려되었다.

2. 이용자료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주요 활용자료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서비스업총조사자료이다. 가장 최근의 조사가 2001년과 2005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석기간도 2001년과 2005년으로 제한하였다.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3-1>에 요약되어 있다.

<표 3-1> 서비스업 업종별 변수의 기초통계량

(단위 : 백만원/명, 백만원, 명, %, %p)

구 분	노동 생산성	1인당 인건비	평균종 사자수	노동 집약도	비정규 비율	매출액 집중도	PC보 유비중	인터넷 사용비중	전자상 거래비중
2001년도									
도·소매업	16.2	7.6	2.7	5.6	28.6	46.2	29.1	21.4	1.5
숙박·음식점업	8.0	4.1	2.8	17.3	41.6	2.7	4.2	2.9	0.2
통신업	180.8	34.1	23.0	16.0	6.8	84.8	90.6	70.4	13.5
금융·보험업	277.6	23.6	17.7	8.0	43.2	63.7	93.3	84.6	8.1
부동산·임대업	59.2	9.6	4.3	14.6	5.9	59.7	61.6	36.7	1.5
사업서비스업	61.7	25.2	14.2	37.4	15.1	71.8	78.0	66.2	7.1
교육서비스업	35.3	23.0	11.0	61.5	15.0	38.8	61.6	48.7	3.0
보건·사회복지사업	38.7	16.2	8.0	32.8	6.2	46.7	86.2	60.0	3.0
오락·문화·운동관련업	47.2	9.7	2.7	16.2	34.1	63.3	40.9	31.7	0.9
기타 공공·수리·개인	19.0	7.5	2.3	28.4	17.8	12.9	24.1	17.8	0.7
2005년도									
도·소매업	33.7	10.6	2.9	5.8	35.7	51.4	44.2	43.0	2.1
숙박·음식점업	10.8	5.1	2.8	15.6	49.5	2.0	13.2	12.8	0.3
통신업	502.1	55.4	16.1	8.9	11.2	84.5	96.2	95.8	10.6
금융·보험업	430.5	34.5	15.6	7.5	42.8	71.4	95.5	94.2	6.9
부동산·임대업	87.1	10.7	4.2	9.9	15.0	65.4	81.4	78.7	1.9
사업서비스업	91.9	26.8	15.8	27.5	21.5	78.5	90.7	89.5	6.1
교육서비스업	44.8	28.4	10.8	57.6	16.9	44.4	68.9	67.5	3.8
보건·사회복지사업	44.7	20.0	8.6	34.1	6.6	46.6	95.2	94.2	3.2
오락·문화·운동관련업	66.5	10.0	2.8	13.5	45.3	62.4	53.5	51.9	1.1
기타 공공·수리·개인	29.0	8.6	2.3	22.8	24.0	20.4	35.1	33.9	0.7
증 가 율									
도·소매업	108.0	40.5	8.8	0.2	7.1	5.2	15.1	21.6	0.5
숙박·음식점업	34.6	24.1	1.7	-1.7	7.9	-0.7	9.0	9.8	0.1
통신업	177.6	62.4	-30.0	-7.0	4.4	-0.3	5.6	25.4	-2.8
금융·보험업	55.1	46.2	-12.3	-0.5	-0.3	7.7	2.3	9.6	-1.1
부동산·임대업	47.1	11.7	-3.0	-4.7	9.1	5.7	19.8	42.0	0.4
사업서비스업	48.9	6.5	10.8	-9.9	6.4	6.7	12.7	23.3	-1.0
교육서비스업	26.7	23.7	-1.9	-3.9	1.9	5.5	7.3	18.8	0.8
보건·사회복지사업	15.5	23.1	8.0	1.3	0.4	-0.1	9.0	34.2	0.2
오락·문화·운동관련업	40.8	2.8	3.3	-2.8	11.2	-0.9	12.6	20.2	0.1
기타 공공·수리·개인	52.3	14.6	1.4	-5.5	6.1	7.6	11.0	16.1	0.0

제2절 추정결과 및 시사점

1. 추정결과

여기서는 전체 서비스산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논의한다. 대분류 업종은 10개로 구분된다.

서비스산업은 세부업종별로 매우 이질적인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산업에 대해 추정한 결과는 제한적인 해석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비스산업 내 업종별 특성과 이질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별 업종별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표 3-2>~<표 3-4>는 10개의 대분류 업종별로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1)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 비정규직 비중 축소, 노동집약도 감소, 평균 종사자수 증가, 매출액 집중도 증가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인건비 상승폭과 노동생산성 상승 폭이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노동생산성과 인건비 상승폭이 비교적 커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효과가 두드러졌다는 점도 확인된다.

고용과 관련하여 평균종사자수 증가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양의 영향을 미친 반면, 비정규직 비중이 7.1%p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비정규직 노동의 고용 증가에 따른 생산성 감소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매 및 소매업에서 노동의 숙련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정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정규직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노동집약도가 노동생산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노동절약적 유인이 커질 것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음식 및 숙박업

음식 및 숙박업에서는 인건비 상승, 노동집약도 감소, 평균종사자수 감소, 매출액 집중도 증가, 산업집중도 감소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업종에서는 노동생산성 상승과 인건비 상승 폭이 비교적 큰데, 이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가 비교적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업종에 비해 인건비 상승폭은 비교적 크지만 노동집약도의 감소폭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이 분석기간 동안 7.9%p로 비교적 많이 증가하였으나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정규직 노동과 비정규직 노동 간에 생산성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음식 및 숙박업 분야에서 비정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균종사자수 및 노동집약도가 생산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숙박 및 음식업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통신업

통신업에서는 인건비 상승, 노동집약도 감소, 평균종사자수 감소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신업에서는 노동생산성 증가폭이 가장 큰 업종이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통신업에서 인건비 상승폭이 가장 크고 노동집약도 감소폭도 비교적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노동수요를 크게 줄이고 동시에 노동절약적 혁신을 추진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의 고용 증가에 따른 생산성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평균종사자수 감소가 노동생

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통신업 분야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인건비 상승, 노동집약도 감소, 평균종사자수 감소, 매출액 집중도 증가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업종에서는 노동생산성 상승과 인건비 상승 폭이 비교적 큰데, 이 역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가 비교적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상승폭이 비교적 큰 반면 노동집약도 감소는 아주 작은 수준이지만, 결정요인 분석결과 노동집약도 감소가 노동생산성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노동수요를 줄여 노동절약적 혁신을 추진했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표 3-2> 서비스업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동의 결정요인(I)

변 수	G	H	J	K
	도매 및 소매업 추정계수 (표준오차)	음식 및 숙박업 추정계수 (표준오차)	통신업 추정계수 (표준오차)	금융 및 보험업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9.38 (2.49)***	-13.65 (4.44)***	68.05 (56.26)	-72.16 (41.96)*
△1인당 인건비	2.62 (0.00)***	2.31 (0.00)***	7.57 (0.00)***	1.94 (0.00)***
△비정규직 비중	-0.19 (0.08)**	0.07 (0.10)	2.33 (2.95)	-4.57 (3.09)
△노동집약도	-0.68 (0.20)***	-0.57 (0.10)***	-3.13 (1.52)**	-7.62 (1.18)***
△평균 종사자수	0.10 (0.03)***	-0.03 (0.02)*	-1.26 (0.57)**	-0.04 (0.15)
△매출액 집중도	0.18 (0.05)***	0.65 (0.18)***	-0.99 (1.18)	3.18 (0.99)***
△PC 보유업체 비중	-0.01 (0.16)	-9.42 (3.90)**	-7.68 (5.20)	11.75 (7.78)
△인터넷 사용업체 비중	0.08 (0.12)	10.22 (4.02)**		14.58 (3.41)***
△전자상거래 활용업체 비중	-0.35 (0.31)	-6.70 (2.87)**	4.82 (3.71)	-0.77 (3.41)
N	858	99	69	128
$\overline{R^2}$	0.434	0.928	0.515	0.674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한편, 비정규직 노동의 고용증가에 따른 생산성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 및 임대업에서는 인건비 상승, 비정규직 감소, 노동집약도 감소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업종에서는 노동생산성 증대 폭이 비교적 큰 반면 인건비 상승 폭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노동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노동생산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과 노동집약도 또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하면, 인건비 상승의 비정규직 노동수요 감소 및 노동효율 증대 효과는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이 있는 경우 고용 위축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6) 사업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노동집약도 감소 만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업종에서 실제 인건비 상승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생산성 증가 효과는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임대업과 대등하게 비교적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집약도 증가는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 사업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실제 증가하였는데 노동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노동의 숙련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이 정규노동에 대한 수요로 대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 상승이 생산성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실제로 인건비 상승은 그다지 크

지 않았고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요인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7)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인건비 상승, 비정규직 확대, 노동집약도 감소, 산업집중도 감소, 기술적 투자 감소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업종에서 실제로 인건비 상승에 의한 노동생산성 증대효과가 작지 않다. 여기에 비정규직이 비율이 약간 증대하였는데 노동생산성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노동집약도 감소가 노동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유인이 더욱 높아질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숙련 축적의 메카니즘이 작동할 수도 있다.

<표 3-3> 서비스업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동의 결정요인(Ⅱ)

변 수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O 교육서비스업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22.39 (18.38)	-10.67 (19.63)	-1.24 (1.31)
△1인당 인건비	7.09 (0.00)***	5.25 (0.00)***	1.90 (0.00)***
△비정규직 비중	-1.10 (0.55)**	0.20 (0.57)	0.68 (0.18)***
△노동집약도	-2.91 (0.48)***	-2.82 (0.54)***	-0.53 (0.04)***
△평균 종사자수	0.01 (0.04)	-0.09 (0.24)	0.01 (0.01)
△매출액 집중도	0.18 (0.92)	0.22 (0.29)	-0.10 (0.03)***
△PC 보유업체 비중	-0.47 (0.94)	0.34 (1.64)	-1.02 (0.48)**
△인터넷 사용업체 비중	-0.09 (0.70)	-0.29 (1.39)	0.00 (0.14)
△전자상거래 활용업체 비중	2.64 (1.59)*	-0.18 (1.11)	-0.33 (0.12)***
N	119	360	134
$\overline{R^2}$	0.663	0.116	0.840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교육서비스업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비정규 노동에 의존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숙련 노동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는 인건비 상승, 노동집약도 감소 등이 노동생산성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에 비추어 그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는 10개 업종 가운데 가장 작은 수준에 불과하여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조정이 가장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밖에도 PC보유업체 확산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서는 인건비 상승, 비정규직 감소, 노동집약도 감소, 산업집중도 감소, 기술적 투자 증대 등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건비 상승이 역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실제 인건비 상승은 10개 서비스업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노동집약도 감소와 산업집중도 증가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PC보유와 전자상거래 활용 등 기술적 투자요인도 노동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10개 서비스업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의존성을 낮추려 했지만, 노동생산성 향상에 역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숙련 노동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기술적 투자의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 기타 공공, 수리, 개인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개인서비스업에서는 인건비 상승, 노동집약도 감소, 전자상거래 활용 증대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기여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이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노동생산성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노동집약도는 분석기간내 비교적 크게 감소한 것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적 체질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4〉 서비스업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동의 결정요인(Ⅲ)

변수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 기타 공공, 수리, 개인서비스업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4.33 (2.18)**	42.68 (9.25)***	-1.16 (4.09)
△1인당 인건비	2.60 (0.00)***	2.60 (0.00)***	4.05 (0.00)***
△비정규직 비중	0.02 (0.08)	-0.34 (0.19)*	-0.06 (0.20)
△노동집약도	-0.46 (0.07)***	-1.79 (0.33)***	-1.2 (0.13)***
△평균 종사자수	0.02 (0.03)	0.04 (0.18)	-0.08 (0.05)
△매출액 집중도	0.05 (0.11)	0.48 (0.18)***	0.12 (0.12)
△PC 보유업체 비중	0.40 (0.15)**	1.72 (0.61)***	0.43 (0.48)
△인터넷 사용업체 비중	-0.08 (0.11)	-2.27 (0.64)***	-0.18 (0.40)
△전자상거래 활용업체 비중	-0.46 (0.27)*	0.65 (0.58)***	1.73 (0.89)*
N	125	165	318
$\overline{R^2}$	0.694	0.268	0.846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특징 및 시사점

지금까지 우리는 대전지역 업종별 서비스업에 대한 노동생산성 변동의 영향요인 분석을 통하여 노동생산성 제고와 고용과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았다. 자료 및 분석 방법의 제약으로 인해 산업별로 확고한 특징적인 결론을 얻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업종별로 서로 다른 구조와 다른 동인에 의해 노동생산성이 변동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력활용 매커니즘은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황수경(2008)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전지역에서도 인건비 상승 과정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대응방식에서는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서비스 업종에서 인건비 상승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정도에 있어서 업종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해법은 노동효율을 높이는 방식 대신 직접적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특히 최근 부가가치 증가율이 현저했던 도·소매업, 통신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정규직 고용 대신 비정규직을 늘려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의존성을 낮추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을 대응해 왔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노동의 질이 담보되지 못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황수경, 2008)

결론적으로, 고용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은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정규노동과 비정규노동 간에 생산성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지어 교육 서비스업과 같은 업종에서는 비정규직 확대가 오히려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황수경(2008)은 비정규 노동에 대신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정규 노동과 비정규 노동 모두에서 임금과 생산성 간의 괴리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 4 장

서비스산업부문 일자리창출 방안

제1절 정책의 추진방향 및 전략

제2절 세부추진방안

제 4 장 서비스산업부문 일자리창출 방안

제1절 정책의 추진방향 및 전략

1. 정책 추진방향

1) 지역기반 서비스업 육성

(1) 지역경제 전반적인 고용창출 능력 유지·보완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전반적인 고용창출능력을 유지·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은 고용흡수력이 제조업에 비해 크게 높으므로 제조업의 자본집약화 및 산업공동화에 따른 고용창출능력 저하 현상을 상당부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능력 제고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진입제한 등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 또는 완화하여 경쟁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정책적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쟁력이 취약한 컨설팅,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지식 집약적 서비스의 경우 선진 외국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 비즈니스 서비스, 문화서비스, 물류서비스, 의료·보건 서비스, 교육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의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지역의 생산성이 낮지만,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구조조정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1) 지역밀착형 고용서비스의 제공

지역밀착형 고용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나 전문성에 있어 역할을 보조하며, 해당 지역의 인력수요에 대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기업의 담당자들이 참여하고, 민간고용서비스업체들과 관련 연구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에서의 문제를 점검하고 분석하며,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한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그 지역의 인력수급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 여건 조성 및 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고용서비스가 지역특성에 맞추어 제공될 것이다.

또한 지역밀착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고용-복지-교육훈련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과 밀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고 추진하기 위해 교육훈련프로그램 기획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앙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 복지제도, 훈련지원, 고용지원서비스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체계 구축

기존에 추진 중인 국가 전체 및 분야별 분권화 정책과 연계하여 서비스업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이들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 분권화를 서비스업 관련 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규정하고, 교육·생활서비스·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대책과 세제·금융지원, 규제개혁 및 개방 등 영역별 대책을 분권화의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

단순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이 아닌 지자체 역량을 감안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영세자영업 서비

스, 교육·훈련·복지·문화 관련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기초단위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나아가 기존의 지자체 사업을 종합 점검하고 지자체의 정책 역량 강화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평가·관리 기능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2. 추진전략

1)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전지역 서비스업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향상하여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는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정책역량의 대부분을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현실에서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특히 고급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양질의 ‘괜찮은’ 일자리가 서비스업에서 창출되지 못하고 있어 취업구조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우수한 인재에서 창출되므로 창의성이 풍부한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문화적 감각과 언어 감각이 뛰어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문화적 개방성을 높이고 우수한 외국인 인력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고용이 단순히 우리의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이는 곧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요인이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창

향후 서비스업부문에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균형적 지역경제발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2)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제고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성장동력 확충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에서 경험하였듯이 기술은 노동생산성뿐만 아니라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요인이다. 특히 대전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략산업부문의 하나인 IT, BT 등 신기술이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서비스 혁신을 정책의 근간으로 정립하고,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서비스 R&D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IT기술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이 제조업 생산성을 능가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3)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 및 업종전환 유도

부가가치와 고용 증가가 높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구조를 고도화하고 고급인력의 흡수창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서비스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포함), 금융업, 통신업, 기계장비 임대, 광고, 방송 등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은 대전지역의 경우 연구개발이 포함된 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달한다.³⁾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전통서비스는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서비스는 성장세가 높고 지식집약도가 높아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은 부문이다. 또한 지식기반서비스는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 또는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는 비율이 높아 산업 전반의 구조고도화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지식

3)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s)는 다른 경제주체의 중간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로서 비즈니스 및 전문직 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서비스, 부동산서비스 등을 포함한다(Elfring,1988).

기반서비스업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직종이 많아 다른 서비스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 분야의 발전은 경제 전체의 일자리 수준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⁴⁾

사회서비스부문의 확충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보건·사회복지, 교육 등 사회서비스분야는 성장성은 높으나 상대적으로 노동집약도가 높은 부문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는 복지국가 실현에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 자본 및 인적자본 축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지금까지 지나치게 공공성만을 강조하여 온 사회서비스 분야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경쟁 및 투자를 촉진하여 이 부문의 산업적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부문은 대표적인 지식기반서비스로서 이 부문의 취약은 서비스업 전반의 발전을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

4)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우선, 고급 서비스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지식경쟁력에 좌우되며, 따라서 서비스업 고급인력 양성에 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식서비스부문에서 고급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조기능이 서비스기능과 결합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학과 경영학이 접목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지식경영의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비스업의 성장은 지식기반경제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지식경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쟁력의 원천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이들이 창출하는 지식과

4) 김현정(2006)의 연구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육성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단적으로 나타내 보인다. 이에 따르면, 지식기반서비스의 명목 GDP 비중을 2005년 현재의 26%에서 2020년 35%로 높이는 것을 가정할 경우, 명목부가가치는 현재의 187조원에서 797조원으로 증가하고, 고용도 현재의 528만명에서 832만명으로 증가하여 향후 15년간 304만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이며, 이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부문의 혁신 및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부문의 혁신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마케팅, 디자인, 설계, 엔지니어링, 로지스틱스 등 유망 서비스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자금 및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정책인프라 정비

서비스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즉, 경제, 비경제분야 및 규제, 경쟁, 대외개방정책을 망라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총괄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할 전문 연구기관의 기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 제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능에만 집중되고 있어 서비스업의 연구개발에 활용될 기초연구는 지극히 희박한 실정이며, 또한 기존 제조업의 산업발전전략은 연구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에 관한 전략 연구는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비스업의 규제를 완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규제완화는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으로 논의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어 진전을 크게 보지 못하고 있으며 개별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 심의를 정책과제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및 관련단체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분권화를 서비스업 관련 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세부추진방안

1. 일자리창출 유망 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1) 기본 추진방향

일자리창출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은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전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서비스업종을 선별하여 산업적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별 노동생산성과 고용 특성에 따라 적절한 지원대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면 높은 성장세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또 타 산업과의 융합 발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일자리 창출 유망 및 쇠퇴 업종 분류

우선, 앞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업별 노동생산성이 높고 고용 창출능력이 있는 산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성장업종 : 고용 증가율 높고, 노동생산성 증가율 높음
- 고용 증가 업종 : 고용 증가율 높고, 노동생산성 증가율 낮음
- 고부가가치 업종 : 고용 증가율 낮고, 노동생산성 증가율 높음
- 쇠퇴업종 : 고용 증가율 낮고, 노동생산성 증가율 낮음

위와 같이 분류하면, 성장업종은 고용과 노동생산성이 모두 높아 지역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고용 증가 업종은 생산성 증가율은 높지 않지만,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매우 높은 업종이며, 고부가가치 업종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능력은 크지 않지만,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는 업종이다. 쇠퇴업종은 고용 및 노동생산

성 모두 낮기 때문에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분류할 때, 서비스 업종별 고용 증가 및 생산성 증가 기여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분류 기준에 의해 일자리창출 유망업종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 일자리창출 유망 및 쇠퇴업종 분류

구분		산업	기여도
성장 산업	고용 증가율 높음 노동생산성 증가율 높음	도매·상품중개업 연구·개발업	고용 증가 기여 노동생산성 증가 기여
고용 증가 업종	고용 증가율 높음 노동생산성 증가율 낮음	정보처리·컴퓨터운영관련업 영화·방송·공연산업 수리업	고용 증가 기여 노동생산성 증가 기여
		소매업, 통신업, 금융업, 기계장비,소비용품 임대업	고용 감소 기여 노동생산성 증가 기여
고부가가치화 업종	고용 증가율 낮음 노동생산성 증가율 높음	부동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운동관련산업	고용 증가 기여 노동생산성 증가 기여
쇠퇴 업종	고용 증가율 낮음 노동생산성 증가율 낮음	숙박·음식점업, 보험·연금업, 회원단체	고용 증가 기여 노동생산성 증가 기여
		자동차판매·차량연료소매업 금융보험관련업	고용 감소 기여 노동생산성 증가 기여
정체 산업	고용 증가율 낮음 노동생산성 평균 증가율	기타서비스 교육서비스	고용 증가 기여 노동생산성 증가 기여

3) 부문별 정책

(1) 선진 경영환경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앞의 분석에서 고용증가율도 높고 고용증가에 기여하는 업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큰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자생적 경쟁력을 갖춘 사업체도 있을 것이고,

사업 초기단계로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체도 있을 것이다. 경쟁력을 갖춘 업체는 대전시의 큰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의 성장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체는 대전시의 육성 지원이 필요한 사업체로서 예산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경영환경의 조성 등 간접적 예산지원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경영환경 조성은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체 경영, 고객마케팅, 시장조사 등 선진 경영기법 교육프로그램의 수행, 그리고 경영정보의 원활한 이용환경 조성, 업종별 특화단지 조성 등 경영환경의 조성을 통한 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업종은 다음과 같다.

- 도매·상품중개업
- 연구·개발업
- 정보처리·컴퓨터운영관련업
- 영화·방송·공연산업
- 수리업

(2) 적극적인 지원·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고용 증가율 낮지만 고용증가에 기여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 지원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하다. 비록 현재까지는 고용증가율이 낮다고 할지라도, 현재 대전의 서비스업 구조 및 특성을 감안할 때 앞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고용증가에 기여하는 속성을 가진 업종이기 때문에, 이 부문의 서비스업이 육성된다면, 여타 산업보다 가장 큰 폭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업종에 대하여 대전시는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인 직접 지원을 통해 육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숙박·음식점업
- 부동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보건업, 사회복지사업
- 오락·문화·운동관련업
- 보험·연금업
- 교육서비스
- 회원단체

- 기타서비스업

(3) 선별적 지원·육성 또는 구조조정

고용증가를 높지만, 고용감소에 기여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 또는 사업체별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인 지원과 육성시책을 수행하되, 성장가능성이 없는 업종이나 사업체에 대하여는 업종전환 등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소매업
- 통신업
- 금융업
- 기계장비, 소비용품 임대업

(4) 선별적 구조조정을 통한 업종전환 유도 및 고용인력으로 유인

고용증가율도 낮고 고용감소에 기여하는 업종은 성장가능성과 경쟁력을 고려하여 선별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업종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물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업종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체들로서 과도한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고 일정부분은 시장경쟁에 의한 자연적 퇴출이 예상되는 사업체들이다.

다만, 정부(대전시)는 이들 업종이나 사업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직능별 업종전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업주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업종전환 사업주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창업한 서비스 사업주의 경우,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이들 사업주가 고용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판매·차량연료소매업
- 금융·보험관련업 - 개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종

2. 서비스산업 인적자원 양성

1) 서비스업 분야별 전문대학원 설립·운영

현재 정부의 소관부처별로 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업종별 소관부처가 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교육내용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평가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교육결과에 따른 성과주의 보상체계 도입 및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효율적 학사운영을 유도한다.

(1) 서비스 기업과 대학원간 학사 연계제도 강화

국내외 기업과 MOU체결을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하고, 소관부처-전문대학원 공동으로 산·학 공동연구 및 업계 전문가 포럼 등 활동 지원한다. 또한 전문대학원 재정지원을 위해 「산·학협동 장학제도」 개발하여 운영한다.

※ 싱가포르 TLI-AP의 「Study Award Scheme」

- 물류기업이 학생 선발단계에 참여하여 필요한 인력을 선발
- 재학 중 학비 지원, 인턴십 및 졸업후 우선 취업기회 제공

(2) 서비스업계 인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및 업계 전문인력간 네트워크 구축

업종-직무별 인력상황을 적기에 파악하여 직업훈련제도 및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정비하고, 전문인력간 정보교환을 통한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정보망을 구축한다.

(3)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기존 업무에 최근 동향을 접목시키는 교육과정, MBA 등 전문대학원과 연계한 기획·마케팅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야간 강좌, 주말 강좌, 인터넷 강좌 등 직장인이

업무와 병행하여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강의 형태를 개발하여 수행한다. 또한 양질의 강사진 공급을 위한 자격기준 및 지원책 등을 마련한다.

(4) 「(가칭)서비스산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전문인력 공급 도모
대전지역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대전테크노파크」를 활용한 지원전담조직(서비스산업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지역 서비스업 인력수급 상황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탄력적으로 정비·운영함으로써 산업인력 수요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2) 서비스부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1) 업종별 단체주관의 직업능력 개발 실시

개별 서비스업체는 자체적인 교육훈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업종별 단체가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사업주 위탁훈련 방식인데, 회원 기업의 수요를 집약하여 교육훈련 제공시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30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훈련비 외에 시설·장비, 프로그램 개발, 전담인력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정보통신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에서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운영 중에 있다.

(2) 서비스산업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기회 확대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소요교육 비용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부 및 무상지원(3년이상 재직자) 제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업 종사자의 전문능력을 제고한다.

(3) 중소 서비스기업의 인적자원 역량 제고

중소 서비스기업이 학습조직화, 핵심직무능력 향상 등 인적자원 인프라구축사업

을 추진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3) 수요자 맞춤형 인력과 업종별 전문인력 양성 확대

(1) 디자인

재교육 위주의 현행 인력양성사업 외에 디자인학과 계약운영제, 경영학 타전공 교과과정 운영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전개한다. 첫째, 디자인학과 계약운영제는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통해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은 교육을 마친 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경영학 타전공 교과과정 운영은 디자인학과에 경영학·공학의 교육과정 운영(capstone design), 공대와의 공동 졸업작품 제작 등을 통해 현장 적합형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행사의 디자인기획자 및 디자이너의 상상력함양과정(Advance Design Course) 운영 등 프로젝트 중심의 디자인 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한다.

(2) 콘텐츠

문화콘텐츠 글로벌 리더양성, 디지털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을 수행한다. 문화콘텐츠는 CT대학원의 콘텐츠 창작, 문화산업 기획·경영과정, 문화콘텐츠 글로벌 리더 양성 및 지역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디지털콘텐츠는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클러스터의 제작지원 시설과 연계한 제작인력 양성 등을 말한다.

3. 서비스산업 R&D 투자확대 추진

1) 기본방향

세계·자금지원상 제조업 중심의 R&D 개념을 서비스산업의 특성에 맞게 확대 한다. 즉, 세계·자금지원상 R&D 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의 R&D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서비스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2) 추진사업

(1) R&D 세액공제 위탁대상에 연구개발지원업을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R&D 위탁대상을 연구개발업에서 연구개발지원업(기술 정보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까지 확대한다.

연구개발지원업에 위탁한 비용에 대해서도 당해연도 지출액의 15% 또는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의 50%까지 세액을 공제해 준다.

(2) 서비스산업 R&D 투자지원 확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디자인, 컨설팅, 유통, 문화콘텐츠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프로세스 혁신 등을 위한 ‘전략기술개발’을 추진한다.

R&D 투자지원을 위해 서비스 R&D 활동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조업 중심의 기존 R&D 개념을 재정립하여 서비스 R&D 투자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즉, 신제품 개발 등 제조업 중심의 R&D 개념에서 벗어나 컨설팅 방법론 개발 등 서비스분야의 R&D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 기업의 인건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 디자인 : 제품개발 후에 디자인을 개발하는 현행 제품디자인 시장에 제품개발 단계에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선행 디자인사업을 추가
- 소프트웨어 : 임베디드-SW 등 전략 SW 중점 육성
 - 제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임베디드 SW 기술적용 확대, WiBro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전략 SW 육성
 - ※ 임베디드 SW : 가전기기, 자동차, 비행기 등에 내장되어 제품을 작동하게 하는 핵심 SW
- 디지털콘텐츠 : 디지털 Creature 영상제작 SW 등 차세대 디지털 콘텐츠 핵심

4. 서비스업부문 자영업주 경쟁력 강화

1) 자영업 정책의 기본방향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전통서비스는 한편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다른 한편은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2008년 현재 대전지역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6%로서 OECD 평균 1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자영업주 비중이 높은 분야는 주로 도매·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분야로 이들 분야는 한정된 내수시장을 놓고 창업 증가에 의한 경쟁 심화로 영세성이 심화되고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 정책의 기본방향은 과잉진입 예방, 경영안정 지원, 사업전환 및 퇴출유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임금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경쟁력 없는 자영업주를 흡수하고, 둘째, 준비 안된 자영업 진출 예방 및 준비된 자영업 창업을 활성화하며, 셋째, 경쟁이 치열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영세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2) 단기정책 : 단기적 경기부양

(1) 생계형 금융지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확대 지원하고, 자영업 생계형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시책을 실시하여 단기적으로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2) 글로벌 규모 이벤트 행사와 연계한 활성화 대책

지역의 한계를 뛰어 넘어 전국 또는 다민족을 대상으로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이벤트행사를 기획하고 이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업소의 영어 안내 및 통역 연결기능을 확충하며, 창조도시 추진과 연계하여 간판문화를 정비(Art design 장려)하고, 전국체전 및 IAC행사시 관련 문화컨텐츠 동시 개최를 통해 관광객 집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3) 적절한 검증 절차를 통한 공식적인 신용보증 제공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확일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대책은 해당 금융기관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뿐만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도리어 부실을 키울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매출실적, 향후 사업전망 등을 고려한 적절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과한 자영업자에게 공적인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대출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대출 및 회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쟁적인 대출금 회수로 인한 자영업 부채 위기의 확산을 사전에 억제해야 할 것이다.

3) 세부추진사업

(1) 상점가 자영업주 특화상품 지정

① 정책목표

자영업주별로 특성화를 장려하여 스스로 전문성을 갖춘 자영업주로 거듭나도록 자극하고 자긍심을 부여함으로써 자영업주의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자영업주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한다.

또한 권역별 상권 활성화를 통한 자영업주의 자생력을 감화한다. 전문성을 갖춘 자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화하여 그 지역 상권 내지는 상점가를 전문화 또는 특성화하도록 유도한다.

② 정책 내용

첫째, 상점가 자영업주를 조직화한다. 대전광역시에서 권역별로 소상공인회를 조직 육성하고, 상공인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는 자영업주 교육지원, 교육에 참가한 자영업주들에게 해외상점가 방문지원, 홍보지원, 판촉지원 등을 포함한다.

둘째, 일점일품운동(일본 오사가 후세 상점가 시행)을 전개할 수 있다. 권역별로 특성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일점일품운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근린생활형인 지역에서 각 점포별로 상품자체 또는 가격면에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일점일품운동을 먼저 전개한다. 권역별로 특성화가 가능한 상점가에서는 권역별 특성화를 먼저 실시한 후 일점일품인증이 가능하다.

셋째, 상점가 자영업주에 대한 특성화를 실시한다. 일점일품운동을 통하여 권역별로 전문상점가를 특성화하여 지원한다. 예컨대 의류전문지역으로 육성할 경우 의류업종의 자영업주에 대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함과 동시에 그 지역이 의류전문상점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입간판이나 도로 정비, 그 밖의 환경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지원한다.

(2) 권역별 업종별 고유 브랜드 개발

① 정책목표

- 1단계 : 스타소상공인제도의 확립
- 2단계 : 소상공인 품질인증제의 확립 후 소상공인 고유브랜드의 개발

② 정책내용

우선 1단계로 소상공인 품질인증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소상공인 품질인증평가단을 구성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한다. 2단계로는 소상공인 고유브랜드를 개발한다. 소상공인 품질인증제의 확립 후 권역별 업종별 고유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스타소상공인제도가 충분히 확산된 소상공인조직에 대하여 업종별 또는 권역별로 공동브랜드를 추진한다.

(3) 대형마트와 지역내 자영업주간의 상생협력 사업

① 정책목표

대전지역의 대형마트는 이미 포화상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의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지역의 중소상인분야 자영업주 간 상생협력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쇼핑편리성의 제고와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 기여한다.

② 정책내용

현재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는 대형마트를 통하여 지역상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대형마트내 일정 면적을 할애하여 지역 자영업주 코너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한다. 또한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이벤트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영업주 전용 워크넷 개발사업

① 정책목표

자영업주에게 인력수급정보를 신속·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자영업주가 직면하는 인력부족률을 낮추도록 한다.

② 정책내용

대전광역시,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중소기업청이 자영업주와 이들 사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전용 워크넷을 개발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용 워크넷을 노동부 등 여러 기관이 제공하는 워크넷과도 연계토록 한다.

이를 위하여 소상공인 전용 워크넷을 제공하는 PC를 대전광역시, 대전지방노동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비치토록 한다.

(5) 민간운영 소호 인큐베이팅센터 활성화

① 정책목표

경쟁이 과열된 외식업 창업을 자제시키고 고학력 화이트칼라 및 청년 창업자 등의 서비스업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성공률을 높인다.

② 정책 대상 및 수단

우선 정책대상으로는 인큐베이팅 센터의 운영이 가능한 컨설팅 회사 및 컨설팅 기능을 갖춘 공동사무실이나 비즈니스센터 운영자 등과 서비스업 창업 희망자 및 기존 소호 사업자로 한다.

둘째, 정책수단은 정부 보유 시설물 및 각종 학교 공공기관의 건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고, 민간 사업자 초기 또는 실적 평가에 따라서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한 후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토록 한다.

③ 정책내용

첫째, 주요 지역별 인큐베이팅 센터 운영 희망자를 접수한다. 운영자격 대상자는 학교, 인력개발센터, 컨설팅회사, 학원 운영자, 비즈니스센터 운영 유경험 사업자로 하며, 인큐베이팅 대상 시설기반을 마련하거나 민간 인큐베이팅센터를 지원한다.

둘째, 인큐베이팅 센터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운영원칙을 확립한다.

(6) 소상공인 전문연수원 설립 유치 및 운영사업

① 사업목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경영기법이 매우 낙후하여 교육을 통한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조업을 비롯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의 소상공인들은 대전의 지역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공공장소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소상공인의 교육이 가능한 전문연수원을 건립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② 정책목표

첫째, 체계적인 종업원 교육 및 소상공인 CEO 교육 실시를 통하여 소상공인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종업원의 실무 및 현장응용능력을 향상한다.

둘째, 현장 실무중심의 연구강좌를 실시하고 쾌적한 연수환경 제공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인재양성을 확대한다.

③ 정책대상

정책대상은 예비창업자, 기종 자영업주 CEO, 종업원, 컨설턴트, 상담사, 단체 등 교육이 필요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고, 가장여성예비창업자, 장애인, 생계형 소상공인 등을 우선대상으로 고려한다.

④ 정책수단

자영업주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이론을 겸한 실무 및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최신 실습장비, 시청각 시설, 전산 및 정보화 시설, 도서 열람 등 정보 공유가 가능한 도서관 등의 부대시설을 완비하고, 산학협력연수 및 국내외 우수연수기관과의 협력으로 진행한다.

(6) 퇴직자 전환프로그램의 활성화

퇴직 이전에 익힌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한 창업을 유도한다. 경영노하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하여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대전광역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생계형 창업자의 양산을 억제하고 과잉상태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임금근로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타 주요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서비스분야

(1)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첨단기술기업 세제지원

① 현황 및 문제점

연구개발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세제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상황이다.

대덕특구를 세계 유수의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상용화를 주 업무로 하는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② 개선대책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5년간 소득·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2)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고객서비스 기능 강화

① 현황 및 문제점

대전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상담 및 컨설팅, 교육·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중이나 양적인 고객서비스에 편중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 센터의 비효율적 조직구조와 상담사 전문성 부족으로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② 개선대책

창업준비자가 창업까지의 모든 단계를 전담할 담당지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문상담사제를 도입하여 고객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분야

(1) 도서관, 문예회관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① 현황 및 문제점

현행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박물관, 미술관은 제외되어 있으나, 도서

관, 문예회관은 부과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수익성이 낮은 문화시설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이용자 편의시설 유지 및 확충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② 개선대책

도서관, 문예회관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2) 광고업, 디자인업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① 현황 및 문제점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차지원을 위해 엔지니어링, 연구개발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과세특례를 운용하고 있다.⁵⁾ 제도도입(2004. 12) 당시 일부 업종부터 적용함에 따라 지원대상 업종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② 개선대책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범위를 광고업, 디자인업까지 확대한다.⁶⁾

(3) 문화산업 클러스터내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현황

지역의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도입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지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동 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② 개선방안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컨

5) 인적회사가 배당하는 금액을 법인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법인단계에서 비과세하고 주주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3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

6) 현행 대상업종은 엔지니어링 사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업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이다.

텐츠 기업에 대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50%, 5년)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국제적 인지도와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③ 지원효과

클러스터내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성장거점 구축을 촉진하고 문화컨텐츠 기업간의 시너지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이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문화컨텐츠 창작활성화를 위한 Creative R&D센터(창작연구소) 설립 지원

① 현황

컨텐츠기업은 핵심컨텐츠 개발 담당자들이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제지원대상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⁷⁾

② 개선방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하여 컨텐츠 창작연구활동을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 형태의 ‘Creative R&D센터(창작연구소)’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이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창작개발비 세액공제 등 지원을 강화하여 창작활성화를 유도한다.

※ Creative R&D센터(창작연구소)기준(안)

- 기업 : 문화산업(가정용품 도소매 등 일부업종 제외)를 영위하는 기업
- 요건 : (인적요건) 전담요원 5명 이상(대기업 : 10명 이상)
(물적요건)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
- 자격 : 동일분야 문화산업에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자

(5) 문화산업에 대한 인력확보 지원

7)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은 ‘자연과학·공학분야 학사 이상자’로 한정되어, 컨텐츠 창작전문인력은 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① 현황

문화산업내 기획·제작 분야 소요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여기에 문화컨텐츠 기업의 급여수준이 낮고 이직률이 높으며, 인력관리 프로그램도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소요인력확보를 위한 지력지원사업이 있으나, 문화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② 개선방안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에 문화컨텐츠 기업도 포함하여 우수인력이 중소 문화컨텐츠기업에 유입되도록하여 문화산업분야 경쟁력을 제고토록 해야 한다.

(6) 문화컨텐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현황 및 문제점

영화 등 문화컨텐츠 기업은 프로젝트별로 벤처투자기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의 벤처기업요건에 따르면 성장가능성이 유리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가 곤란하다.⁸⁾

② 개선대책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을 개정한다. 즉, 문화컨텐츠분야의 경우는 벤처기업 투자의 자본금 비율 조건을 현행 10%에서 7%수준으로 완화한다.

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① 개념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진료분야를 제외한 병원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은 벤처기업의 요건으로 벤처투자기관(창투자, 신기술금융사, 산은, 기은)이 기업의 자본금 10% 이상 투자, 최소 5천만원 이상 투자할 것과 투자유지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영(급여청구·가격계약, 법률회계서비스, 경영컨설팅 등) 부분을 위탁받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병원경영지원회사는 구매, 인력관리, 마케팅 등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② 목적

의료인과 의료법인이 참여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개개로 의료자원 공동이용을 통한 비용절감·규모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③ 현황 및 문제점

일부 비급여 과목을 중심으로 개인 병·의원의 프랜차이즈 형태가 등장하여 브랜드 제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 경영합리화를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④ 주요 추진과제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network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한다.

(2) 공급과잉 영세 의료기관 구조조정

의료법에 비영리 의료기관의 인수·합병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청산과 관련 시·도지사 허가 상으로 규정할 뿐 인수·합병의 구체적 요건 및 절차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공급과잉⁹⁾인 소규모 병상(30병상 이하)에 대한 시설·인력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해 서비스 질 개선 및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의원급 병상에 대한 시설 인력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다.

(3)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사업」 추진

신의료 기술, 혁신적 신약 개발 등을 촉진하고, 의료산업간 연계 강화(중개연구)

9) 30병상 이하(의원)의 경우 완화된 관리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전체 병상 중 의원급 영세 의료기관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를 위해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사업을 추진한다.

혁신형 연구중심병원(Innovative Research hospital)은 진료 위주에서 벗어나 임상 지식·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 등과 협력연구를 통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메타클러스터내 구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자에 대한 평가 및 선정작업을 하고 있다.

(4)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의료관광객 유치기반 마련

① 현황

정부는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환자 유치에 경쟁력이 있는 의료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지역에서 경쟁력있는 의료분야 밀집지역, 관광자원 연계 가능지역, 외국인 접근 용이 지역의 특구조성을 통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② 개선방안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에 특성화된 의료관광 특구를 마련하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관광특구의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특구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규제특례 등 특구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다.

③ 지원효과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지역 의료수준의 해외인지도 제고 및 관광수입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다.

4) 숙박 및 음식점업

(1) 관광식당업 지정 및 관리기준 개선

① 현황

현재 관광식당이 시설기준, 사후관리기준 미비로 관광전문음식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② 개선방안

관광식당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관광식당업 지정기준 개선방안 및 사루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2) 관광숙박업 사무처리업무 광역화

① 현황

기초 지자체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관광숙박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한 점이 있다.

② 개선방안

관광숙박업의 사무처리기관을 시·군·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관하여 체계적인 관광숙박업 지원정책의 수립을 유도해야 한다.

5) 기타

(1) (가칭) 「서비스산업지원센터」 설립

① 현황 및 문제점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에 따라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비중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상황이나,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는 상황이다.

② 개선대책

대전광역시에 지역특성별 서비스산업 육성 창구 역할로써 「(가칭)서비스산업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보다는 기존 운영중인 대전테크노파크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서비스산업 통계인프라 개선

①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산업 통계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서비스산업 특성을 반영한 통계가 부족하고, 실제 업종별 통계기관과 작성 담당 관련 정보제공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② 개선대책

서비스업 통계조사 업종과 서비스수지 항목을 더욱 세분화하는 등 「지역통계생산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조사된 통계를 One-stop으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스템에 통합한다.

(3)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여건 조성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서비스업에 대해 무담보 신용대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 산업은행 :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및 기술력 평가대출(신용대출) 지원 확대
- 기업은행 :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확대
- 서비스업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 기업CB의 DB내실화, 매출정보·전력요금 납부정보 등 공공정보 집중 강화(금융기관 정보 공유시·등록시 인센티브 제공)

(4) 개인서비스업종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①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부터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시행중이나 개인서비스분야는 제외되어 있다.

② 개선대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개인서비스업을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 대상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인서비스

업종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5)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문화·환경·통신서비스업 범위 확대

①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기업의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대상업종과 투자대상 자산을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¹⁰⁾ 일부 문화·환경서비스업종의 경우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어 설비투자시 조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통신서비스업종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가 좁아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② 개선대책

영화상영업을 임시투자세액5공제대상에 추가하여 디지털 영사기 등 영화설비의 신규투자를 촉진한다.

분뇨처리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환경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폐기물처리업 등 유사 업종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전기통신업종의 필수 자산인 무선중계용 철탑을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에 추가하여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6) 민간고용지원서비스 확대

① 현황 및 문제점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세한 수준이며, 직업소개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부의 지원체제 미흡과 낮은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이 지역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주요 추진과제

규제개혁과 지원강화를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업지원 민

10)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간위탁을 시범실시하고, 교육훈련 강화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7) 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규제완화와 신규업무 확대, 감독제도 개선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제고한다. 수표발행이나 직불카드업무, 수익증권판매 등을 허용한다.

대전광역시에 서민금융활성화 T/F팀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8) 청소 등 단순용역 서비스의 제한경쟁입찰 제한기준 완화

청소 등 단순용역서비스이 경우 소규모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차원에서 제한경쟁입찰시 참가자격 기준을 실적의 1배에서 0.5배 이내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

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연구과제

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결론

지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민의 생활안정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그동안 성장엔진의 역할을 수행해 온 제조업이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서비스업을 그 대안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서비스산업이 중요한 것은 서비스업의 생산 및 고용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되는 등 세계 경제의 기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비스업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경제의 정보화 및 지식반도 서비스업의 잠재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처럼 서비스업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 및 지역경제가 성장잠재력 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을 겪으면서 일자리 창출은 과거 어느 시대에 비해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배양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대전지역의 서비스산업은 비중이 확대되어 2006년 현재 부가가치의 71.6%, 고용비중의 82.8%를 차지하는 지역경제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 비중이 고용비중에 비해 저조하고 생산성 증가도 크게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탈바꿈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고용 증가율 및 기여도가 높은 성장잠재력이 큰 서비스산업부문을 육성하는 한편, 전통서비스업 등 낙후 부문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통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과다하여 생산성 제고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은 사업전환 유도, 체인화 등 경영방식 혁신 유도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생산성 및 일자리 창출 능력을 더 한층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국가 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경제내 비중이 특히 낮은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부문을 시급히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문은 다른 서비스 부문에 빙 노동집약도가 높다는 특성 때문에 노동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문은 인적자본 축적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흡수력이 매우 높아 최근 경제·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어, 정책적으로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2절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서비스업종별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화, 그리고 업종별 고용 및 생산성 기여도 분석을 시도하고, 서비스부문의 10개 대분류별 생산성 증가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사점을 적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의 결정요인분석을 시도한 것은 본 연구에서 이용한 「서비스업총조사」 자료의 한계 때문이다. 자료의 주요 조사항목이 본 연구에서 이용한 바와 같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구성하기 어려운 항목들이다.

따라서 향후에 서비스업관련 지역통계의 조사자료가 좀 더 확대되고 시계열 자료가 축적된 후에 적합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업 관련 지역통계 자료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다양한 지역통계의 생산을 위해 예산과 통계조사기획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서비스업총조

사」는 5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및 고용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10개 서비스업 대분류별로 분석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정책대안도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분석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매우 이질적인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산업에 대한 추정은 매우 제한적인 해석과 정책대안의 도출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서비스 산업내 업종별 특성과 이질성을 적절히 반영한 효과적인 분석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 산업별 각론으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기개발연구원(2007),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육성방안 연구」, 위탁연구 2006-11, 2007.5.
- 구준모(2003),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 방안”, 산업연구원, 2003.9.
- 김기희(2008), 「대전지역 자영업주 활성화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2008년도 수시연구과제, 2008.11.
- _____ (2008), “대전지역 산업인력 수급구조의 특징과 개선방안”,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 설립 4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자료, 2008.7.24.
- _____ (2008), “대전·충남 통상·유통 전문인력 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전·충남고용포럼, 2008년도 대전·충남지역 일자리창출 대토론회, 발표자료
- 김현정(2006),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6.5
- 김혜원·안상훈·조영훈,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 연구보고서 2006-01, 2006.2.
- 김승택·노상현·신현구,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 정책연구 2006-02, 2006.2.
- 김흥기(2007), 「소상공인 지원정책 혁신방안 연구」, 소상공인진흥원,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2007.12.30.
- 김희석·변창욱·송하율·정종석(2005), 「지역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방안」,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05-20
- 김희석·조현승·하봉찬(2007),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의 한계와 대응방안 모색”, 「KIET 산업경제」 2007년 4월호, 산업연구원, 2007.4.
- 대전광역시(2006), 「서비스산업 육성계획(2007~2011)」, 대전광역시, 2006.
- 류소원·박소연(2006),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과제”, CEO REPORT, 2006.12.
- 배진한(1996), “서비스산업화와 경제성장”,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제2호, 1996.12.
- 소상공인진흥원(2007), 「소상공인 정책개발 보고서」, 소상공인진흥원, 2007.10.31.
- 송영관(2006), 「한국의 서비스산업과 한미FT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6
- 재정경제부 외(2006),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6.12.15.
- _____ (2007),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7.7.30.
- _____ (2007),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7.12.10.
- 전국경제인연합회(2006), “서비스산업 성장을 통한 고용 확대방안 - OECD 주요국 통계를 중심으로”, CEO REPORT, CER-2006-09, 2006.6

- 전병유(2004), "서비스부문에서의 일자리 변동에 관한 연구", 유경준 편,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와 고용창출」, 연구보고서 2004-05, 한국개발연구원, 2004.
- 정준호·김진웅(2006), 「서비스업 고용 변화 요인과 시사점 : 한국, 미국, 일본 및 스웨덴의 비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315호, 산업연구원, 2006.10.19.
- 하봉찬(2006),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정체 현상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KIET 산업경제」, 2006.9.
- 한국개발연구원(2000),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유경준 편저, 비봉출판사, 2000.
- 한국개발연구원(2006), 「전략적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6.
- 황수경(2008), "서비스산업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동의 구조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2008, 제8권 제1호.
- 허재준·서환주·이영수(2007),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서비스업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2007.
- Baumol, W. J.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 the Anatomy of Urban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57(3) (1967) : 415~426.
- Beebe, J. H. and Haltmaier, J. "Disaggregation and the Labor Productivity Index".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3)(1983) : 487~491.
- Peneder, M. "Industrial Structure and Aggregate Growth".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14(2003) : 427~448.
- Schettkat, R. and L. Yocarini.(2005), "The shift to services employment : A review of the literature",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2005
- Triplett, J. E., & Bosworth, B. P.(2004), *Productivity in the U. S. Services Sector : New Sources of Economic Growth*,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Shearmur, R., & Alvergne, C.(2002), "Intrametropolitan patterns of high-order business service location : A comparative study if seventeen sectors in Ile-de-France", *Urban Studies*, 39(7) : 1143-1163.
- Wolfl, A.(2005), "The service economy in OECD countries", *STI Working Paper Series*, 2005/3, OECD, 2005
- _____.(2005),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 industries : An assessment of recent patterns and the role of measurement", *STI Working Paper Series*, 2003/7, OECD, 2003

기본연구보고서 2008-07

서비스산업부문의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발행인 육 동 일

발행일 2008년 11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3519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TEL 042-○-○ FAX 04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